

영기영의

'77 10월호

12부 합동 교사친교대회 (10월 3일)

대할예수교장모회 중현교회

천국백성의 지상생활

(성경 / 베드로전서 4 : 1 - 11)



김 창 인 목사(당회장)

사람마다 대개 자기의 과거는 기억하지만 땅 위에 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정확하게 계산해 놓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시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죄악을 청산하고 충성하는 것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하는 비결인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육체의 남은 때를 여관같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성공자로 살다 천국으로 가시겠습니까?

먼저 자기의 신분을 기억하고 선한 목적을 명백하게 세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알고 지키고 원수가 손 못대도록 아름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백성된 자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천국백성은 비록 티끌 세상에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화롭게 하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다가 세상 이별하는 날 웃으며 주님 앞에 보고서를 바치며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래의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계획의 성공은 내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허락에 있는 것입니다. "오라"고 부르시면 이제라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지키며 살려는 목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도는 자기의 신분을 알고 신분을 지키고 선한 목적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선한 목적을 세우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즉 육신에 속하여 있는 욕심을 끊으라는 말입니다. 육체에 끌려가는 정욕, 음란과 술 취하는 것, 방탕과 열락에 사로잡히는 것, 불법한 반역을 도모하는 것, 우상숭배와 미신, 불의한 욕심들을 끊은 다음에 비로소 값있는 대한의 시민이요, 천국의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다음 조심하는 생활로 살고

그리고 영육의 자랑감이 되려면 욕심을 끊은 다음에 조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세지말을 고하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신자는 조심하여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조심하여야 되겠습니까?

첫째, 유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됩니다. 사람은 편안하면 유혹이 옵니다. 이 유혹에 걸리면 넓은

바다를 마음대로 헤엄치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는 것처럼 불행이 옵니다. 신자는 물질에 대한 유혹, 권세에 대한 유혹, 남녀관계에 대한 유혹을 거절할 줄 아는 조심하는 백성이라야 값이 있습니다.

둘째, 기회를 안놓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성공의 문은 닫혀지고 절망의 함정이 아물아물 내 눈을 가립니다. 군대는 훈련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성도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아껴서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 맺는 복된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 민족 3,500만이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 묶여 진다면 공산당의 위협도 봄철에 눈녹듯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바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조심하여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록에 기록됩니다. 심판받을 때에 상과 벌이 엄연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조심하는 사람만이 나그네 생활을 성공적으로 살고, 이 사람만이 천국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충성스러운 성도의 발걸음을 걷는 사람인 것입니다.

올바른 봉사의 생활

한걸음 더 나아가 천국백성이 땅위에 머무는 동안 올바른 봉사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봉사는 지혜로운 봉사, 깨끗한 봉사, 실력있는 봉사를 해야 욕심에 때묻지 않은 깨끗한 사랑의 봉사인 것입니다. 내 나라를 아름다운 나라로 건설하고 세계선교사업하는 교회로 자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된 영혼들의,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에 불이 붙은 사람들의 탐과 눈물과 피가 올바르게 쏟아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탐을 바로 흘리면 부귀와 존귀가 찾아오고 기쁨을 짜 바로 흘리면 세상을 인도하는 불기둥이 됩니다. 이번 77민족성회를 볼 때 외국의 유명인도 국내의 유명인도 아닌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보았습니다. 역사에 없었던 백 오십만이 모였다면 인간의 힘으로 모였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바른 봉사자가 됩시다. 막사 부자 행정가도 좋습시다. 그러나 그보다 좋은 것은 탐과 눈물, 기쁨과 재산을 쏟아 놓는 봉사자가 있어야 내 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충현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신자는 마음이 주위 환경에 위축받을 때 일은 끝나버립니다. 신앙과 소망이 메어지면 죽음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거룩한 봉사를 통하여 이 민족과 자손 앞에 성공이 환하게 열릴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성도들의 힘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10 월의 행사

- 2/제직회
- 3/12부교사 합동친교회(서오능)
- 7/교회 천야기도회·구역요원 훈련(1·4지구)
- 8/그리기·글짓기 대회(주교연·남산)
- 9/남전도회 월례회·특강(산전교)
- 13-14/학습·세례 문답 및 세례식
- 16/성찬식(1·2·3·4부 예배)·여전도회 월례회·산
업전도회 월례회·월간 중현 10월호 발행
- 17/교육위원회
- 18/장로취임 및 장로장립식
- 23/구역권찰회·전도위원회 월례회·기업주 초청과
담회(산전교)
- 24/선교음악제(고등부·총신 주최)
- 24-27/십령부총회(청년부·수도노청장년면·석태운
목사)
- 28-30/특강(대학부)
- 30/해외복음선교회 월례회(헌신예배)·학부모 초청
라담회(유치부·초등부)·특강(장년부)

10월호 차례

- <말씀> 천국백성의 지상생활/김창인 목사.....2
- <편집실에서>4
- <이렇게 말한다> 불신자와의 결혼문제
/정기성 목사.....5
- <특집 I> 논단: 교회 교육을 위한 번역문
교회는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R.B.카이퍼.....6
- <특집 II> 설문: 세성전진속에 붙이는
성도들의 소망·결심·실천계획.....10
- <청년신앙수필> 신계은·유미숙.....13
- <직분론⑥> 집사의 직무와 자격
/정상우 목사.....14
- <이단종교비판⑨> 세일교단 외
/윤형철 전도사.....15
- <간증문>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신다/허드슨.....16
- <해외성도의 편지> 독일에서/김복섭9
- <교사 수필월례회> 예수 물렀다면④/노경모.....9
- <도서정보>19
- <책소개> 적어도 우리는 결혼했다 외
/안영자.....19
- <완송가 해설> 너 시험을 당해18
- <1200자 칼럼>18
- <예배자료> 시편에서 듣는 주간의 만나20
- <구역소식>21
- <구역장 노우트②> 신앙지도 지침(13)
/백성룡 목사.....21
- <교회뉴스>22
- <이달에 만난사람④> 윤종성 장로.....25
- <표지설명>26
- <사진으로 보는 이모 저모>.....27
- <실로암 못가에서>28

우리의 신조

우리는 보수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
스터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삼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민족의 복
음화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교회가
된다.

월간 중현

김 창 인 목사 라디오 방송 설교 안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음악을 타고 가는 복음—

이 복음의 외침을
가족과 이웃과 함께
물으며 은혜 받으십시오

아세아방송(1570kHz)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45분부터

매주일 저녁 7시 15분부터

앞으로 남은 70여일은 좀 부지런했시다

■ 교회 마당에 치쌍아 놓은 월동용 연탄을 편집실 창문을 통해 바라다보니 이해도 벌써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섭섭했습니다. “연초에 그 장황하게 늘어놓았던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의 몇분의 일도 채 이뤄지기 전에 한해가 다 저물다니…….” 앞으로 남은 1977년의 70여일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떡과 포도즙을 나누는 성찬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뚜렷하고도 진지한 감사의 느낌도 없이 그저 먹고 마시게 될까 보아 염려가 앞섭니다. 그것은 평소 성찬예식에 대한 가르침이 좀 부족하다고 느껴왔기에 이것도 한 원인이라 생각되어 이번 10월호에 세례와 성찬예식에 대한 글을 실었어야만 하는데 지면상 실지 못함이 무엇보다도 아쉽게 생각됩니다.

■ 10월호 특집으로는 「교회는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제목의 교회교육의 문제와 지난호에 이어 「새성전 건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는지」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들을 실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교회의 교인들을 교육시킨다는 일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인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만 서로 나누고 있을 뿐이지 그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좋을지 자세한 방법은 아직 터득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솔직한 대답일 것입니다. 하기가 몇년 전만 해도 교회교육이란 코흘리개 어린아이들에게 어울리는 것이지 점잖은 어른들에게는 우습게 들린다고 생각을 하던 것이 이제는 모든 교인들이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만 해도 크게 나아진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따기까지 일손을 멈추지 말아야지, 하다가 멈추면 시작을 아니함만 못하다는 편견은 면키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새성전건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가를 생각하는 문제도 그렇습니다. 더욱 효과를 낼 수 있고 좋은 방법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알려지고, 실행되어야만 되겠지요. 이러한 뜻에서 10월호 특집으로 다룬 「새성전 건축 참여방법에 대한 설문」은 이러한 구체적인 방법을 고집어내는 말머리에 불과합니다. 더 구체적이고 좋은 생각들일랑 여러분들이 계속하여 이야기를 이어주셔야겠습니다. 나의 일일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일이니깐요.

■ “버리지 않으면 될게 아닌가?” 중등부가 「휴지즐기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무심히 나온 말입니다. 생각할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그 바쁜 때에 금쪽 같은 시간을 중등부 학생들이 휴지나 즐기는 일로 쪼개야 한다니 이진 손해도 이만 저만한 손해가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휴지를 아무데나 집어내던집니까? 하늘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휴지는 각자가 모아 휴지통에 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쪽 같은 시간을 어린 학생들에게 선물로 줍시다. 독서의 계절 이 가을에……

■ 월간 출현에 대해 잘 생겼느니, 못생겼느니 시시비비 말이 나올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꼭 따라붙는 말이 있습니다. “거, 임을거리가 있어야지.” “그게 뭐요?”라고 물었다 치면 “신앙간증문 좀 많이 넣으시오.”라고 대답합니다. 그대 간증문을 좀 많이 실어보려고 애는 쓰지만 소재빈곤(사실은 생각의 차이지만)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대 이번 10월호에는 중국 선교하면 맨 처음 꼽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간증문을 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의 이야기가 아니라서 좀 섭섭은 하지만 누구의 믿음이란 믿음은 꼭 같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달래봅니다.

■ 구역권찰회의 활동에 대하여 모든 성도들이 깊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94개 구역이 내년에는 150여개 구역으로 크게 늘어날 계획이라니, 이에 필요한 구역장·권사·권찰 등의 필요한 일꾼을 선택하는 문제가 이만저만 어려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그대 구역권찰회는 구역의 성경공부도 인도할 수 있는 구역교사를 길러낼 생각으로 현재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오는 11월부터는 적당한 사람들을 선택하여 교육과 훈련을 시킬 모양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호에 이어 이번호에도 이 교육과 훈련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원래는 구역소식난에 들어가야 할 이 소개의 글이 뉴욕스난에 실리게 되어 좀 안되기는 하였지만 여러분들이 잘 읽고 잘 협력만 해 주신다면 그건 문제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역을 위해 일하시고 싶으신 분 가운데 구역권찰회에서 말하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생각되면 스스로 구역권찰회장이라도 찾아가 “나 일 좀 시켜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때가 빨리 와야 하겠지요.

■ 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육지의 거리가 먼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먼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종종 소식 보내주세요. 이국에서의 신앙체험을 적어보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이렇게 답한다 □

불신자와의 결혼문제

정 기 성 목사
 <부목사·전도위 지도>

물음/저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여성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며 저의 부모님을 비롯하여 모든 형제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요즘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지요?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만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능한 예수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스 9:12).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이 선민인 이스라엘과 결혼하는 것이 우상을 안방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 하지 말라……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고후 6:14-15)라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몸만 아니고 몸과 마음이 합해져야 하는 것인데 서로 마음의 길이나 다른 사람과 어찌 합해질 수 있겠습니까? 만일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사람과 같이 산다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을 앙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한 집안에서 늘 싸워야 할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주위에서 불신결혼을 하고 고통하고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불신결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가서 예수 믿게 하던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여야 되겠고 또한 기도를 하나님께 부탁하여 믿게 한다 하여도 거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장가예수」라는 말도 듣는데 이 말은 장가가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척 또는 잠시 믿어 준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원하는 신부를 맞이할 욕심으로 교회에 나와 학습도 받고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성되고 돈을 버는데 별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본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상복귀, 불신앙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내가 교회에 나아가 봉사하는 것도 싫어하고 십일조 내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아

내는 남편을 속여야 하고, 같이하자니 신자구실을 못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으로 이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차라리 혼자 살든지 혹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같은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고는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고통의



<정기성 목사>

합정에 빠져서 허덕일 때에는 이미 때가 지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불신결혼을 금하는 것은 누구보다 우리 자신들을 위함이며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을 복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음/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든지 이혼할 수 없는지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 하는 말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반대한다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작지아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막 10:6-9)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은 전혀 이혼을 용납 안 한 것도 아닙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유족 받을 것이 없느니라”(고전 7:15)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극단의 경우에서 그리스도와 남편을 놓고 백일하여야 할 경우,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그리스도 앞에 굳게 있으면서 끝까지 인내하여 가정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같은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5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느니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러고보면 일단 결혼한 사람은 어떤경우에든지 이혼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아름다움이라 하셨습니다.

교회는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인들에 대한 교회교육의 필요성 · 방법 · 내용을 중심으로—

R. B. 카이퍼

- ... 교회가 교인들을 가르쳐야 할 의무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는...○
- ...소홀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교인에 대한 교육이 교회의 의무라...○
- ...는 것을 대다수의 교회들이 아주 잊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 ... 이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는 수 많은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 ...를 드러내고 있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커다란...○
- ...장애물이 아닐 수 없다.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아는 것』은 성도 자신과...○
- ...교회의 영광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
- ... 그러므로 교회는 교인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고 아는데 있어서 장성한...○
-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일에 있어 결코 게으름 수가 없다. 또한 성경...○
- ...말씀에 대하여 깊고도 체계 있는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 만이 말씀의 위로...○
- ...와 권면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범람하는 그릇된 생각들에 대한 교회의...○
- ...경고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

> 차 례 <

1. 교회는 교인들을 왜 계속적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2. 교회는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3. 교회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1. 교회는 교인들을 왜 계속적으로 가르쳐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교인이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을 강력히 말씀하고 있다. 선지자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하시면서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릴 것노라”고 선언하였다(호 4:6). 하나님은 또 계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하였다(호 6:6).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들은 교훈적임과 동시에 훈계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일차적으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즉 바울 서신의 실제적인 부분들은 항상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하였고 또 거기서 뿌리박은 것들이었다.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이 교육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강조한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그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하였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또 사도 바울은, 확실한 말로 거저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엄히 책망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자니라”(딤후 3:2, 4).

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 자니라”(딤후 3:2, 4).

교인들 교육에 정성을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는 한 가지 이유는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라 생활이다」라는 생각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에 입각해서 현대의 수많은 목사들은 실제적으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착하게 살며 선을 행하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 선한생활을 이끌어 가는 한, 교인들이 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또 거의 차이가 없는 일이라고 교인들을 안심시킨다.

그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다. 그 결과 슬프게도 허다한 교인들이 구원의 도리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지식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교리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은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간주하고 있다.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교인들을 교육하는데 있어 소홀히 하는 두번째 이유는 그릇된 구원관 때문이다. 구원은 단지 순간적인 체험으로만 간주되고 계속적인 과정으로 보지 않을 뿐이다. 일단 사람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그는 이제 이미 구원에 도달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신자의 영원한 구원의 보증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또한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하여도 아직도 대단히 부족한 사람들을 가르쳐 주고 있다. 구원의 과정의 하나인 성화(聖化)는 성도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기나긴 역사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도 때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롬 7:24)라고 탄식하였다. 이는 바울 자신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탄식함이 아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도 성화(聖化)에 이르기까지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의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견줄 수 없는 대부분의 교인들로 하여금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일단락 된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면 큰 잘못이다. 그들의 믿음은 자라야만 한다. 자라되 성화(聖化)에 이르도록 자라야하며 이는 올바른 진리를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신자의 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성화는 진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베드로는 물결 흩어진 신자들에게 권면하지 아니했던가. “갓난 아이들같이 순진하고 심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벧전 2:2) 그리고 또 베드로는 이렇게 명하였다. “오직 우리 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벧후 3:18).

그 세번째 이유는 흔히 교회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강조하나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교회의 교인들 교육이 그토록 소홀히 되고 있는 세번째 이유는 교회의 외부관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데 기인한다. 흔히 교회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의무는 강조하면서도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 있다.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그들의 탄생에 관한 의무도 갖지만 또한 그들이 태어난 다음에는 원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로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 4:11-13).

2. 교회는 교인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회는 교인들의 교육이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가르치는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꼭 같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행하여야 한다. 이처럼 교인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루어져야 할 몇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설교는 일차적으로 가르침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설

교가 가르침이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였다는 말씀을 수차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르침이었다고 한 것도 여러 군데 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그처럼 생각이 없이 읽은 사람이라도 이 대사도의 설교가 또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자가 얼마나 적을지! “설교는 지경의(知情意)의 세가지 모두에게로 향해야 한다.”고 성 어거스틴은 말하였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지성을 첫째로 들었다. 현대 설교자의 대부분이 정(情)과 의(意)에 치중하고 지(知)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성인 성경공부 시간을 주일(主日)에 갖느냐, 평일 저녁에 갖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성경공부 시간을 주중(週中)의 교회회와 함께 하게 되면 좋지만 한주일에 한시간도 안되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바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모든 목사는 성인 성경반을 인도하여야 한다. 성인 성경공부 시간을 주일(主日)에 갖느냐 평일 저녁에 갖느냐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경공부 시간을 주중(週中)의 교회회 시간과 함께 갖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권할 만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시간도 못되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바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일 목사가 심방중에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역시도 권장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 심방중에 목사가 말씀을 선포할 경우에는 대부분 객관적인 「말씀」을 선포하기 보다는 오해의 주관적인 신앙적인 체험을 말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고 또 교인을 가르치기 보다는 오히려 위로하고 권면하기를 힘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신앙생활 체험은 성경에 비추어 보아야만 하는데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만이 말씀의 위로와 권면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좀 더 명확히 말하자면 공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침 받아야 하며, 타락의 길을 걷는 자들은 그들의 길이 어떻게 잘못되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어떤 것이며(고후 7:10),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한다.

교회는 교인들 교육을 위해서는 보통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쇄물을 이용해야 한다. 어떤 집에서는 인쇄물이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교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그것을 읽고 또 읽고 나아가서는 그것을 암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성경과 나란히 교회 내의 모든 가정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주석과 또 교리에 관한 서적들—자기가 원한다면 교리문답서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아울러 위의 참고서적들을 이용하는 습관을 갖도록 권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교회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교회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순한 사실이 오늘날 강조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계시 대신에 체험의 종교를 강조하고, 상당수의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과거 및 현재의 위대한, 아니 위대하다고 하는 사상가들의 견해를 찬양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회가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 말씀에 대한 얼마나 많은 지식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적은 지식만 가지면 족할까를 생각하는 것 같다.

교인들을 가르칠 때에 대부분의 교회가 얼마나 많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얼마나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성도의 생활을 불편 없이 꾸려나갈 수 있을까를 더 생각하는 것 같다. 교회 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또한 「블론딘(Blondin)」적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려고 한다. 즉 블론딘적 방법이란 유명한 나이가 자라 폭포를 건너 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도 안전하게 든든한 다리를 통해 건너지 않고 단단한 줄을 직선으로 매고 그 줄위를 통해 위험한 폭포를 건너간 것과 같이 얻을 수 있는 많은 지식 보다는 될 수 있는 한 적은 지식을 가지고 영원한 성에 들어가려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밥을 먹지 못하고 젖을 먹어야만 하는 그들의 유아적인 영적상태를 책망하였다(고전 3:2). 히브리 기자 또한 유아적인 신앙상태에 대하여 날카롭게 책망을 하였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것이냐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먹을 자가 되었도다”(히 5:12).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예전에 관한 설교에서, 또 현대의 타락한 여러가지 속죄교리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을 주는 강론을 들을 때 올바른 판단이 어떤 것인지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교인들을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가르침 받아야 한다(행 20:27). 이 말은 교인들이 여러 진리를 서로 분리해서 배워야 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하나의 체계로서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한하고 결점이 많은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할 때 서로 모순되는 것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완전한 성경의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구원을 주심은 우주적이고 신실하시다는 완전한 성경의 가르침을 둘 다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리해서 배우고 또 전체적으로 체계 있게 배운 교인들은 서로 상반된 듯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꼭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거짓 진리도 또한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무엇이나 무분별하게 받아들여기를 좋아하는 어리석은 교인들의 광적인 탐닉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안전판이 되며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 지성의(知情意)의 요소 가운데 그 어떤 한것에도 치우침이 없이 신학적으로 균형 있는 판단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만연된 거짓 생각들에 대하여 교인들이 경고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이다. 만일 교회가 거짓된 생각들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는다면 많은 교인들이 이 범람하는 현대의 이단조류에 휩쓸려 갈 위험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인들에게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가르쳐 줌으로써 이단과 비교해 보일 수 있는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단지 교인들에게 미리 경고하고 무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교인들 스스로가 진리의 관념을 명확히하여 거짓된 이단을 잘라내려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짓이란 진리와 자세히 비교되면 될수록 명확하게 들어나기 때문이다.

교회가 교인들을 가르침에 있어 성경의 가르침을 그 시대의 특수한 상황과 절박한 문제들에 적용시키는 일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현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그릇된 사회복음」으로 대체해 놓았고 대부분의 보수교회들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특수한 상황과 절박한 문제들에 적용시키는 일에 등한히 하고 있다.

전쟁은 어느 때 허용할 수 있으며 또 요구되기도 하는가? 인구·식량·인종 등의 문제에 있어 성경적인 해결책은 어떤 것인가? 공산주의는 왜 반기독교적인가? 성경은 전체주의 국가를 정죄하는가? 이상의 문제들은 이시대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야만 하는 문제 가운데 몇 가지 예이다.

또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형식적인 정통주의에 대하여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기를 계속하여야 한다. 때때로 교인은 진리를 믿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한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분이시요(약 2:19),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믿고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 한분 하나님을 아는 데 그쳐서야 되겠는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도록 힘쓰고 사랑하며 순종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지체인 교인들이 진리에 대하여 아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주 안에서 행하게 될 때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번역/오태웅 집사)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교회는 그들의 탄생에 관한 의무도 갖지만 또한 그들이 태어난 다음에는 원만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주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지면위에 적지 않고는 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김복섭) 독일의 간호원으로서 취업 계약을 맺고 있는데 지금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영광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지난 3월 18일 불행하게도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 대퇴와 소퇴가 부러졌고 갈비뼈가 오른쪽 3개 왼쪽 3개가 부러져서 폐를 다쳤고 그로 인해 일주일 동안 폐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의 생명은 위협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환자 취급하는 병동에서 (Beatmungsstation) 12일 실세를 져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의 건강상태는 비참하였다고 합니다. 최고도로 발달한 의학의 영향을 받을 수도 없었고 의학의 기술로는 저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그리고 가망 없다는 판명을 의사가 내렸다고 합니다. 육호기 목사님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육목사님이 병원을 방문하셨을 때 “오직 기도만 하십시오. 이 환자의 생명에 관해서는 2주 경과를 기다려 봐야 합니다.”라고 그 때에 의사는 말했다고 합니다. 그 때에 여기 한인교회에서 (Heidelberg) 육목사님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 특별기도 시간을 마련하여 장기간 간절히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현교회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소식을 2달 후인 지금들었을 때 저는 감사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중현교회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셨다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생명을 얻은 저는 예전에 주님을 모르고 생활해 왔던 일들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연약한 육신의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지난 일들! 어쩌면 어리석었고 바보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약하다는 것을 깨달은 지금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찬마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은혜에 감사합니다. 병원에서든 기적으로 살아났다고 하며 어느 환자보다도 빨리 건강이 좋아졌다고 말하며 결과가 놀라게 좋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의 혜택을 받은 것이라 믿습니다. 현재 저의 건강상태는 회복중에 있으며 하루하루 좋은 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고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계기로 약하였던 믿음이 강한 믿음으로 변하였고 주님을 진심으로 저의 구원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저는 체험하였습니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 주시며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앞으로도 저를 위해 많은 사랑과 끊임 없이 기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하여 주신 중현교회 형제, 자

매님들께 다시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이델베르크 (Heidelberg)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부족하나 중현교회와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안에서 마음 평강 하시길 기원하며 항상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멘.

Address:

Kim Bok-Sub

69 Heidelberg Von der Jann Str 28.

West, Germany.

* 김복섭씨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합시다.

■ 교사 수필릴레이④ ■

예수 몰랐다면

노 경 모

<유년부 교사>

이 글은 수많은 인간들 중에 예수를 알고 만나고 체험한 자만이 쓸 수 있는 특권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드린다. 예수를 알고 모르는 차이는 관념의 차이도, 종교의 차이도 아니다. 바로 그것은 삶의 차이요 생명의 차이인 것이다.

예수를 몰랐어도, 25년전에 한 생명이 여러 사람의 기대 속에 탄생했을 것이다. 그는 부모의 사랑과 선생님의 지도 속에 지식과 인격이 자라났을 것이다. 그가 성년이 되었을 때 정의와 진실을 추구했을 것이다. 지금도 그는 자기의 알찬 삶의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분투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몰랐어도 내가 살아온 생애 대하여 후회하지 않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다져온 성실한 삶에 대하여 보람을 갖고 내일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다짐 속에서 기대를 걸 것이다. 정의에 불타고 성실히 살고 있는 나의 젊은 삶에 찬사를 보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허무한 신기루를 바라보면서 값없는 삶의 돌을 굴러 올리는 신화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혀 모르면서 오늘도 10월의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굳은 각오와 처절하리 만큼의 냉정한 인내로 성실히 살고 있을 것이다.

예수를 몰랐다면 나의 삶의 결과를 몰랐을 것이요, 나를 위한 커다란 삶보다 주님을 위한 조그마한 삶이 더 귀하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자신의 정의에 불타는 삶에 대한 찬가보다는 비굴하리 만큼 나약해 보였던 창기의 회개 눈물이 더 귀하다는 것을 결코 몰랐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도 나를 위해 피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다음지명 : 김정자 선생>

새성전건축에 불이는

성도들의 소망·결심·실천계획

월간 총현에서는 지난 9월호 특집『광야의 성막에서 오늘의 교회까지』의 연장으로 총현교회 새성전 건축에 불이는 성도들의 소망·결심·실천계획을 알아보기로 하고 설문을 통해 몇몇 분에게 부탁하였습니다. 전체의 뜻이 된다고 볼 수 없겠지만 바라기는 이 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새성전 건축에 대해 보다 높은 소망을 품고 새로이 결심하며 보다 적극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선생님 방도 있었으면

정 상 원

<초등부·6년>

① 새성전을 지을 때는 선생님들을 위한 방이 각 부별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선생님 사무실(주교 사무실을 말함)은 여러 부가 함께 쓰기 때문에 복잡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전화도 제대로 안들려요.

② 저희 가족이 새성전 건축을 위해 특별히 하는 일은 없고 식구별로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③ 어른들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절약해 가며 올바르게 써서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어린이들은 기도도 힘껏 뒤에서 빌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점심·저녁마다 기도

한 득 순

<초등부·6년>

① 새성전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교실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 어린이 교실에는 어린이 도서실·기도실·회의실 등이 있어서 성경도 읽고 또 재미있는 책도 읽으며 선생님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어린이 회원들이 모여 월례회를 열어 여러가지 문제를 의논도 할 수 있겠지요.

② 우리집 식구는 매일 아침·점심·저녁마다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기로 하고 하루에 세번씩 기도하고 있어요. 또 저금통에 저금도 하고 있습니다.

기도로만 그치지 말고 적은 정성이라도 바쳐야

김 광 현

<중등부·2년>

① 새성전을 짓게 되면, 지금의 교회보다 2~3배 정

도는 커야하며 주일 아침예배가 끝나면 언제나 봄비는 교회 마당을 많이 넓혀야겠습니다. 또 주일 아침 교회 앞에 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고 있어 혼잡하니 주차장 시설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주일학교 각 부가 제한된 장소에서 시간에 쫓겨가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각 부마다 독립된 예배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4부로 드리고 있는 대예배를 2부 정도로 드릴 수 있는 커다란 대예배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며 작정한 성전건축헌금을 바치고 있고 교회에서 준 저금통에 동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③ 현재 중등부 면교회에서는 새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에만 그치지 말고 적은 정성이라도 새성전 건축을 위해 바쳐야겠습니다.

필요한 전 먼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

서 은 영

<고등부·1년>

① 최소한 한 부에 예배실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각 부마다 성가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각부에 딸린 성가연습실이 따로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새로 짓는 성전에는 가능한 한 나무를 좀 많이 심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과 같은 온통 딱딱한 콘크리트 바닥보다는 성전을 둘러싼 푸른 나무를 보면 지난 6일동안 시달리고 피로했던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좋아지겠을까요? 또한 주께서 만드신 자연물로 성전의 외관을 감싸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볼 때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② 아직 크게 하는 것은 없으나 작으나마 성전건축헌금을 붓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불신 가정이기 때문에 아직 가정적으로 모든 가족이 다 힘쓰고 있지 못하지만 성전건축을 위해 힘을 날이 오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③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성전건축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데 우선 학생들을 위해 구약시대의 성전건축에 관한 성경말씀과 오늘날의 성전건축 관례를 가르쳐 주고 성전건축의 중요성과 개인에게 미치는 것들, 성전건축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아 성전건축을 위해 힘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것을 먼저 갖추어 놓으면 외적인 성전건축, 즉 눈에 의한 실천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 문«

- ① 새성전을 짓는다면 최소한 이러한 시설이나 장소는 꼭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 ② 새성전 건축을 위해 당신은 지금 현재 개인적·가정적으로 어떤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 ③ 새성전 건축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때마다 새성전건축 기도시간이 있었으면

최 명 실
〈고등부·2년〉

① 주일학교 각부에서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에도 분반공부도 충분히 하며 반별로 친교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각부별로 예배실과 교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교회가 큰 교회지만 가족적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② 성전건축헌금을 내고 있으며 앞으로 하루에 한번씩 새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집에서는 교회에서 나누어 준 저금통에 저금을 하고 있습니다.

③ 앞으로 우리 고등부에서 벌었으면 하는 운동은 모든 고등부 학생들이 한사람도 빠짐 없이 성전건축헌금을 작성하여 내도록 하며, 주일 저녁이나 토요집회 시간에는 새성전 건축을 위한 통성기도 시간을 반드시 넣었으면 합니다.



③ 헌금적금 뿐만이 아니라 새성전을 위해 필요한 자동차·강대상·전자오르간·의자 등 시설물이나 비품을 구입해 헌납할 수 있는 헌물적금도 앞으로는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모두하는 성전건축헌금과 기도에 그치고 있을뿐

안 숙 영
〈대학부·1년〉

헌물적금도 실시하면 어떨지

정 필 질
〈고등부·2년〉

① 새성전을 짓는다면 어떤 시설과 장소가 필요할까?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먼저 인쇄고 문을 두드리면 목사님이 반가이 맞아주시는 상담실이 있었으면 좋겠고, 남·여나 주·야를 불문하고 누구나 항상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 교회의 역사나 특별한 상황은 물론 각종 행사와 교육자료들을 전시하는 상설전시관, 연극·영화는 물론 성가곡도 감상하며 공부할 수 있는 시청각교실, 선교사를 비롯하여 교인 가운데 필요한 사람에게 각종 기능을 훈련시킬 수 있는 실습 위주의 기능훈련실, 교회내의 모든 자료를 보관하며 분석하여 메모리화 데이터화·조직화 할 수 있는 교회 문서관리실을 두고 여기에 도서실·인쇄실·교육자료실 등을 연결시킨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로는 분수대가 있는 잔디밭을 만들어 우거진 나무숲 사이에 긴 의자대를 두고 휴식·대화의 장소로 삼는다.

② 기도하는 가운데 3년 만기의 2만원짜리 적금을 붓고 있다.

① 새성전을 짓는다면 주일학교 각부마다 예배실이 꼭 마련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주일에 별관 4층의 학생 예배실을 한번이라도 와 본 사람은 공감하리라 생각하지만 오전 9시에 중등부, 10시 20분에 고등부, 오후 12시 30분에 대학부, 3시에 또 다시 고등부 오후집회의 순으로 이어지고 있는 지금 실정은 그야말로 명동거리를 방불하게 합니다. 또 집회가 끝난 후에 하게되어 있는 대학부의 토의시간은 고등부의 오후집회 시간에 밀려 제대로 토의도 못하고 결론도 못 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② 아직은 별로 나 자신이나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하게 실천하고 있는 일이 없어서 부끄럽습니다. 집에서 하고 있는 일은 남들이 다하는 성전건축헌금과 기도하는 일에 그치고 있을 뿐입니다.

전적인 헌신·희생·투자

허 순 이
〈청년부원〉

① 예배실은 특히 잡음이 없이 조용하며 통풍이 잘 되어 신체적인 피로를 주지 않도록 모든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실내에 너무 많은 것들이 부착되지 않

새성전건축에 붙이는 / 성도들의 소망 · 결심 · 실천 계획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훌륭한 교육관이 세워질 줄을 믿지만 주일학교 각부학생들의 신체적조건이나 그들의 활동내용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영아부 · 유치부를 위하여는 특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며 교사들을 위한 시설과 장소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한가지 더 말한다면 어린이들이 활기차게 마음껏 뛰놀수 있는 운동장과 기구들을 들고 싶습니다.

② 새성전 건축을 위해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받은 저금통에 현금을 넣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재산이라면 우습기도 하지만 내 나름대로 정리한 나의 재산의 10분의 3 정도의 금액을 적금으로 붓고 있습니다.

③ 효과적인 실천운동에 대하여는 특별히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확실히 믿기는 하나님 만을 믿고 순종하고 전적으로 헌신하고, 투자하고, 희생하는 가운데서만이 새성전은 건축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건축현금 저금통을 볼 때마다 절약하며 기도해

권 명 옥
〈초등부 교사〉

① 저는 무엇보다도 새성전은 교육을 중시한 교회로 건축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각 학급별로 6~10명정도 수용할 수 있도록 별도 교실이 있어야만 한다고 봅니다. 현재 저는 초등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멀리서 버스까지 타고 교회에 나온 어린이들이 30분 동안 예배드리고 30분 동안 출석부르고 공과공부를 하는데 열반의 소음 때문에 어떻게 가르치었는지 열덜덜 하고 매주마다 거저 돌려보내는 것만 같아 마음의 아픔입니다.

②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저금통을 만든 것은 참 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저금통이 생기기 전에는 기도만 했지 실제로 내가 해야 할일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금통을 볼 때마다 절약을 하게 되며 새성전 건축을 위해 한번이라도 더 기도를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③ 무엇보다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적으로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기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새성전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재정이 필요

김 천 채
〈제일성가대원〉

① 이미 기본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새성전은 음향효과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되 성가대의 찬양이 성전내에 잘 공명될 수 있도록 설계

되었으면 합니다. 또 교육관은 특히 시청각교육 위주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새성전에서는 탁아실도 운영하여 아이를 맡기고 부모들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② 우리【충현교회 교인】이면 누구나 실천하고 있는 정도의 기본현금 밖에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다섯 식구 각각의 이름으로 건축 현금을 하고 있으며 재산의 십일조를 적금형식으로 현금하고 있습니다.

③ 제일성가대에서는 대원들이 회비를 모아 제일성가대 이름으로 100만원의 성전건축현금을 하기로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새성전 건축이 완료될 때까지 건축재정을 하여 교회내의 모든 야외예배행사는 가급적 생략하거나 최소한 경비로 검소하게 하고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친목회등도 일절 생략하였으면 합니다.

노인들의 휴식처도 마련되었으면

김 재 창 목사
〈노년부 지도〉

① 새성전에는 노인들을 위한 강의실 · 상담실 · 휴식실 등이 있었으면 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소외당하기 쉬운 노인들이 교회에 나와 볼과 마음을 편히 쉬며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강의실은 마루방에 방석을 놓을 수도 있겠으나 등을 기대고 앉을 수 있는 안락 의자를 놓는 것이 좋겠고 현재로 보아서 적어도 200~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많고 할 말이 많은 것처럼 노인들에게도 역시 문제가 많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따듯한 차라도 대접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담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주일 뿐만이 아니라 평일에도 언제든지 찾아와 쉴 수 있도록 간단한 오락기구나 운동시설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노인들에게는 갈 곳도 없고 대화의 상대도 적습니다. 공원이나 혹은 사회의 경도당 같은 곳에 갈 수도 있겠으나 영육간에 손해를 입기가 쉽고 믿음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의 기쁨 · 보람

신 제 온

<제일성가대원>

할렐루야! 먼저 주님의 귀한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남 신안군 지도면 탄동리 원당교회를 목격지로 삼고 어둠이 깔린 고요한 밤(?) 기쁨과 두려움으로 밤열차에 올라 그곳서 가질 성경학교에 대해 계획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힘껏 뛰며 봉사함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두 시간 동안 퍼부었던 폭우로 철길 몇 군데가 비에 휩쓸리어 도저히 운행할 수 없다는 소식 때문에 집도 나고 감당할 수 없는 걱정만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힘을 내어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저희들은 엄청나게 들끓는 인파를 보는 순간, 머리를 흔들고 뒤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외버스에 몸을 싣고 해제에 도착하니 날은 저물었고 그야말로 형언키조차 어려운 지친 상태 속에서 거처할 곳은 커녕 우리들의 시야에는 낯선 것들만이 날아왔습니다. 그 때 어떤 아주머니의 친절할 안내로 정신없이 따라가고 보니 해제중앙교회 사택——주님의 사랑에 눈물이 핑돌아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양회 관계로 비워 있는 사택에서는 집사님들의 따뜻한 사랑에 그저 감사만이 우리들의 입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들의 집을 부두까지 운반해 주신 분들의 고마움에 손을 흔들며 보답하며 배에 올랐고 내릴 때는 원당교회 교우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교인들이기에 교회가 비좁아 교회마당에 서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성전건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도 있을 수 없지만 꺾박과 붓매를 맞으면서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전을 오늘까지 눈물과 기도로 이끌어 오신 여집사님이 아직도 성전한 구석에서 땀흘리며 봉사하시는 것은 저희들의 가슴 속을 뭉클하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 여집사님은 수년 전만 하더라도 칠성당을 모셔 놓고 그 미션 속에서 해어나질 못하였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느 교육자의 권면이 있는 후 집사님의 마음 속에 “우상을 물리치고 내게로 오라”는 부드러운 음성에 그만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마음은 기쁨과 평화만이 넘쳐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 가겠다고 소리 높여 외치시는 간증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여름에도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기쁨과 보람을 갖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 이 글은 전남(全南)의 어느 외로운 섬을 몇 동료와 함께 자비(自費)로 다녀온 전도보고문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해에도 제주도 서귀포로 전도여행을 다녀온 일이 있다. <편집자>

천동과 회개

유 미 숙

<청년부원>

우르릉 우르릉 우르릉 광광……

어지러운 천둥소리는 나의 컷전을 마구 후려친다. 무심히 들으며 책상 위에 벌려진 일에만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한번 더 가해지는 크나 큰 천둥소리에는 고막의 놀라움도 컸지만 펜의 움직이는 속력이 떨어지고, 머리 속에서 빠르게 돌아가던 생각들도(?) 거기에 마음의 움직임까지 서서히 증지되어 가고 있었다.

분명 일하나 없는 하늘이었기에 맑은 하늘의 날벼락이란 말이 떠올라 목을 길게 늘이고 창밖의 하늘의 사태를 주시해 보았다.

갑자기 중학교 가정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이 뇌리를 스친다. 땀흘리며 집을 매는 농부들의 중참(中站)을 준비하던 부녀자가 밭 길을 밭보자기를 찾았으나 마땅한 것이 없어 자기가 입고 있던 고쟁이를 벗어 밭을 덜어 이고 논길을 걸어가다가 벼락 맞아 죽었다는 무서운 사실이, 머리 속을 소용돌이치듯이 맴돌더니 무의식 속에서도 더럽고 추한 죄는 싹트고 있다는 느낌이 무섭게 밀려온다.

주의 자녀라고 자부했던 나는 어떤가? 머리가 좌우로 흔들린다. 아니다, 아니다. 나를 시켜명게 만들었던 죄의 멍치에서 하나 하나 끄집어내어 점점하며 거슬러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회개하나마 눈앞에 다가서는 죄의 모습과 나의 기억 속에 있는 것만도 끝없이 이어진 죄사슬 뿐이다. 뭉클함과 죄스러움과 자책하는 마음이 나의 온 심신을 위압하며 억누른다.

아직도 울리고 있는 우르릉 광광…… 더 이상 바람을 계속하지 못하고 나의 책상으로 쫓겨왔다. 전딜수가 없었다. 두손을 붙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러나 마음만은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 깊은 심중(心中)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눈물을 절제할 힘도 잃어버린 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았다.

잘못된 결과에 대하여는 누구의 탓으로만 돌리기 전에 나로 인하여 된 것을 깨닫고 모든 일에 해결점을 찾으라는 주님 종의 음성도 다시금 새로와진다. 그리고는 232장 찬송이 입가에 소복히 담긴다. “너희 죄사해 주사 기억도 안하시네 너희 죄사해 주사 기억도 안하시네……”

눈을 뜨고 다시금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물려왔을까 시커먼 하늘이 구멍이라도 뚫렸는지 엄청나게 굵은 비가 시원히도 내리고 있었다.

휴지를 쥌는 손은 고운 손

성전을 깨끗게 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

주일학교 중등부

집사의 직무와 자격

정 상 우 목사

<부목사·교육위원장>

1. 집사직의 유래

집사직분의 유래는 신약에서 초대교회의 비약적인 부흥발전으로 인하여 사도들의 직무분량이 많아짐에 따라 기도와 말씀전하는 신령한 직무와 구제를 위주로 하는 재정관리의 직무를 분리시켜서 이 구제를 위주로 하는 재정관리를 맡기는 직분으로 당시 유대인의 회당에서 모든 재정관리를 하는 집사직을 본따서 집사제도를 두게 되었다(행 6:1-6). 이것이 최초로 신약교회에 집사직분이 세워진 유래인 것이다(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문답조례 제 6장 참고)

2. 집사직의 구분

안수(장립) 집사와 서리집사가 있으니 안수집사는 교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를 받은 자로서 당회에서 안수함으로 임직하는 항존직이다. 그러나 서리집사는 일시적으로서 보통 당회에서 선정하여 임명하며 안수 없이 1년적이다.

3. 집사의 직무

집사는 제교회 회원으로서 교회를 봉사하게 되는 데 주로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하는 일을 한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교회정치문답조례 제 6장에서 집사의 직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난한 교인을 심방하여 생활하는 형편을 위로하며 상당한 생업에 종사하도록 권고하며 인도하는 일.

② 구제비를 수합(受合)하는 일과 빈궁·무력한 교인과 혹은 의인에게 구제하는 일.

③ 교회의 모든 경비와 예배당 문서를 보관하는 일.

④ 성찬 기명을 보존하며 성찬용품을 예비하는 일.

⑤ 집사는 교회의 재정과 구제하는 일을 전관하는 직분이므로 또한 기도하며 성경말씀으로 위로하는 직무도 행할 것이니라.

4. 집사의 자격

집사의 자격은 본교회의 입교인으로서 무흠한 성도여야 하며(단, 여자인 경우 안수집사는 될 수 없다)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사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집사의 자격(행 6:3; 딤후 3:8-13)을 요약 정리해 보자.

① 성령이 충만한 자여야 한다(행 6:3). 여기 성령충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령의 은사와 함께 성령의 열매(갈 5:22)를 맺은 신앙인격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② 지혜가 충만한 자여야 한다(행 6:3). 여기 지혜의 충만은 세속적인 지혜를 말함보다 하나님을 경외하

며(잠 1:7) 세월을 아낄 줄 알며(엡 5:16)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엡 5:17) 지혜를 말한다.

③ 칭찬받는 자여야 한다(행 6:3). 여기 「칭찬」이란 말은 원어로 「말투래오」인데 이는 「증거받는다, 입증된다, 인정된다」 등의 뜻이 있다(히 11:4 참조). 그러므로 집사될 사람은 신자나 불신자한테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증거와 입증이 되어진 사람이어야 한다(행 11:26).

④ 단정한 자여야 한다(딤후 3:8). 여기 「단정」이란 말은 원어로 「셈노스」인데 이는 「존경할 만한, 고상한, 위엄있는, 거룩한」 등의 뜻이 있다. 그러므로 집사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야 함은 물론 사람한테서도 존경받을 만한 신행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⑤ 일구이언(一口二言)을 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딤후 3:8). 여기 「일구이언」이란 것은 「거짓말」을 하며 「아침」하는 것을 뜻한다. 집사될 사람은 진실해야 하며 또한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해서 는 안된다.

⑥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딤후 3:8). 집사직은 헌금을 취급하고 구제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될 것인데 이익만을 지나치게 추구하고 탐을 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 「더러운 이익」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어지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그러므로 집사가 될 사람은 올바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⑦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딤후 3:9). 집사 자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건으로 우리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교리)의 본질을 굳게 파악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⑧ 참소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딤후 3:11). 주로 여자집사에게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모략증상이나 헛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거짓으로 남을 비방하는 일을 말한다. 이런 자는 집사의 자격이 없다.

⑨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한다(딤후 3:11). 즉 교회에서만 아니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충실해야 할 것을 말한다. 이 충성이야말로 청지기된 하나님의 중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덕이 된다.

⑩ 건전한 가정을 가진 자라야 한다(딤후 3:12). 합당한 부부생활과 믿음으로서의 자녀양육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상 열거한 자격요건을 살펴볼 때, 집사의 자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기에 집사가 된다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다. 이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다만 주님 앞에서 「무익한 중이라」(눅 17:10) 하는 고백과 아울러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와 자기훈련이 있어야 한다.

여호와 새일교단과 대한기독교 장막성전

윤 형 철 전도사

<중동부지도 · 총신연구원 3년>

1. 여호와 새일교단

여호와 새일교단의 교주는 이희자(李熙子, 본명은 李流性, 1915.11.4생) 목사이다. 그는 계룡산 소재 새밀수도원을 본부로 삼고, 그가 친히 맡아 보고 있던 새일중앙교회(서울 광화문에 위치)를 중심으로 포교하였다. 현 교세는 전국 약 80여개의 교회가 있으며, 신도수는 약 18,000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실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숫자이다). 신도들은 대부분 기성교회에 대해 불만을 품고 이탈한 부녀자들이다.

이들은 그릇된 학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여호와 새일교단은 피로 산 백성이 환난 중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교단”이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날에 그 진노를 받지 않고 새 시대로 들어가는 교회는 여호와 새일교단 뿐”이라고 한다.

또한 “부름받은 백성을 심판할 때에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 다림줄의 진리대로 심판을 베푸는 것”이며 이 다림줄의 진리를 직접 이희자에게 주었다고 하며 계시록에 기록된 쫓대교회가 바로 여호와 새일교단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신약의 피는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을 두었고, 여호와와 새일이라는 것은 이 땅을 새롭게 해서 다시 에덴의 축복을 받도록 역사하는 것을 가리킨 것”이며 “이 날까지는 개인적인 영혼 구원문제 하나를 중점두었지만 새일의 역사는 것은 전세계 인류를 없애는 자는 없애고 남길자는 남겨서 지상왕국을 이루는 역사”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은 지상에 지상왕국을 건설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들의 예배시간에서 성가(찬송)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기성교회의 찬송가는 영역이 감퇴되었으므로, 기성교회 찬송가 대신 하늘에서 직접으로 재앙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로써 지은 새일성가만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생수의 중」인 이복사와 신비한 관계를 가진 자는 왕권을 갖고 안식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른바 「생수가림」설을 만들어 수많은 여신도들과 간음행위를 함으로써 사이비의 추모를 세상에 드러내기도 했다.

자칭 「말세비밀의 중」, 「마지막 중」이라고 했던 이희자 목사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1972년 8월 7일 계룡산 새일수도원 앞 냇가에서 목욕하던 중 심장마비로 죽었다. “내가 죽으면 5일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한 이희자 목사의 예언에 따라 신도들은 그가 살아날 것을 기다렸으나 5일 이상이 지나도록 살아나지 않으므로 경찰의 권유로 장례했다.

2. 대한기독교 장막성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장막성전의 교주는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어린 중」이라 불리우는 유재열(柳在烈: 1949.2.1생)이다. 유재열은 김종규가 이끄는 일종의 신비주의 집단인 호생기도원에서 그의 제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가지 환상과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김종규가 여신도와 함께 간음행위하는 현장을 목격한 뒤, 이 소문을 퍼뜨려 여러 신도와 함께 그 기도원을 이탈하여 1966년 청계산 계곡에 따로 장막성전을 지었다.

장막성전에는 다른 신흥종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7천사제도가 있다. 이 7천사는 마 13:39-42에 기록된 바 추수때 즉 세상의 끝날에는 인자가 파숫꾼 곧 천사들을 보내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신도들을 미혹케 하고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여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한을 행한 불법의 무리들을 심판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7천사는 구원받을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아 장막성전으로 끌어들이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 7천사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대접을 받아가지고 땅 위에 7재앙을 내리는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 7천사중 하나인 교주 「어린 중」은 이새의 뿌리에서 자라난 한 싹으로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며, 열방과 만민이 그에게로 복귀하여 그 가운데 있게 될 천사며(사 11:10), 그는 순이라 이름하는 자이며 여호와와의 진을 건축할 자이며 택함을 입은 자요(수 6:12), 예루살렘성 곧 교회 가운데 다니면서 불의와 불법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명을 맡은 자라고 한다(겔 9:3-4).

한편 1966년 3월 1일부터 1260일이 지나면 세상은 불바다가 되며 이 환난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장막성전으로 오라고 하여 많은 신도를 포섭했다. 또한 말세에 아마겟돈 전쟁의 환난을 피하기 위해 이미 청계산 계곡에 큰 밀실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 압혈과 토굴 속으로 장막성전 신도가 다 들어간 뒤에 세상은 불바다가 되고 그 후 다시 나와서 신천신지를 이루고 신도들은 왕들이 되어 각 고을을 다스린다고 했다.

그러나 「어린 중」은 거짓 교리와 허위 심판설로 우매한 열성신도들을 유혹하여 많은 재산을 현금명목으로 탈취하여, 그 것으로 퇴폐적이고 음란한 사생활을 계속했으며, 7천사와 간부들의 비행은 날로 심해져 갔다. 이러한 추행들이 하나둘 폭로되자, 신도들은 뒤늦게 비참한 모습으로 장막성전을 이탈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 비위사실을 조사한 바 있다. (*)

간증문 영국인 허드슨 테일러(H. Taylor) 선교사는 그의 생애중 열번이 나 중국에 갔으며 천신만고 끝에 2천의 크고 작은 교회를 설립하였다. 그는 첫번 중국으로 갈 때의 일을 다음과 같이 간증해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손아귀에서 구해주신다

1853년 9월 19일—템포리스호 선창가에서는 한 작은 집회가 있었다. 내 사랑하는 모친이 리버풀에 와서 나를 전송해 주었다. 배안까지 걸어온 어머니는 나의 잠자리를 정리해 주시고 같이 이별의 찬송을 불렀다. 나는 무릎을 꿇었고 어머니는 소리내어 기도하였다. 이것이 내가 중국으로 가기 전에 들은 어머니의 최후의 기도였다. 나를 안위하려 어머니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였다.

어머니와 나는 서로 손을 흔들며 어머니는 부두로 올라가고 나 혼자 갑판에 서 있었는데, 배가 갑문으로 나와 정말 이별할 때가 되었을 때—아, 나는 정말 영원히 있을 수가 없으리라. 어머니의 마음속으로 나오는 곡성을! 그 소리는 마치 칼로 나를 찌르는 듯하였다. 나는 그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으며”라는 말을 잘 깨달을 수 있었다.

이윽고 배는 대해를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9월 24일 하루종일 풍우제의 수운주는 갈수록 하강했으며 동시에 검은 구름이 모여들었고 바람은 점점 커져서 수부들은 힘든 한 밤을 보내었다. 이로 인해 주일 아침 선주는 예전에 없이 그들을 선미로 불러 기도문을 읽었다. 정오가 되자 바람이 더욱 커졌다. 나는 전도지를 수부들에게 돌리고 나서 배멀미를 느껴 곧 내 방으로 돌아갔다. 풍우제는 아직도 하강하고 있고 바람은 점점 맹렬해져 거대한 태풍으로 변하였다.

선주와 부선장 모두 다 이번보다 더 큰 풍랑은 본 적이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나는 갑판에 올라가 보았다. 그때의 광경을 나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해면에 웅위광대한 장관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다. 파도는 끊임없이 노호하여 부딪쳐 흰 거품을 드러내고 배 양면에 파도가 집채만큼씩 일어나 배를 바닷속으로 침몰시킬 것만 같았다. 그러나 배는 여전히 용감히 저항하고 있었다.

광풍이 서쪽에서 불어닥치자 배는 바람을 따라 표류하며 아무 힘도 없었다. 선주는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배는 칠스해안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그가 대답했다. “대개 15해리나 16해리쯤 됩니다. 우리는 돛을 한껏 펴야만 됩니다. 돛이 많으면 많을수록 배를 교묘히 조정할 수 있고 좀더 표류하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생사의 고비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 배를 불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을 마치자 그는 수부들을 명하여 돛들을 펴게 하였다.

상황은 극도로 급박스러웠다. 광풍은 노호하며 배의 앞뒤로 드리닥쳤는데 무서우리만큼 빠른 속도였다. 갑자기 풍랑의 폭대기에 올라섰다가는 갑자기 밀로 줄

러떨어졌다. 그것은 마치 해저로 끌고 들어가는 것 같았다. 어떤 때는 해수가 바람을 타고 갑판으로 들어오기도 하였다. 그 때에 태양이 바다로 들어갔다.

나는 이것을 주시하면서 생각하였다. “태양은 내일 아침 다시 떠오르겠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어 구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일 이 배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몇 조각의 파편으로만 남을 것이다.” 밤공기는 차가웠으나 우리는 끊임없이 배 위에서 해수(海水)와 싸워 전신이 젖어 있었다.

나는 배안으로 내려가 서서 찬송을 부르고 또 몇편의 시편과 요한복음 13~15장까지를 읽고 많은 안위를 받아 한 시간쯤 잘 수 있었다. 깨어나 풍우제를 보니 점점 상승하고 있었다. 나는 선주에게 물었다. “하리다를 평안히 지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말했다. “만약 배가 바람을 따라 표류하지 않는다면 겨우 넘길 것 같습니다. 다만 만약 표류중이라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표류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두 시간동안은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 못합니다.” 선주가 대답하였다.

풍우제는 계속 상승하였으나 너무 느려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하였다. 그 때 나는 나의 사랑하는 부모·자매 또 몇몇 특별히 친한 친구들을 생각하자 눈물이 꼬여 떨어지려 했으나, 선주는 의연한 태도였는데 그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간절히 우리를 붙잡아 여겨 달라고 기도하였다. “안 믿는 선원과 수부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구해 주시고 또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내 마음속에 갑자기 이 귀결이 생각났다. “환난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했더니 이 응답이 나에게 이뤄졌다.

그 때 우리의 상황은 확실히 무서운 것이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달빛은 밝은데, 보이는 건 바다 뿐이었다. 나는 배안으로 들어갔다. 풍우제는 여전히 상승하고 있으나 바람은 거세었다. 나는 수첩이 든 지갑을 꺼내어 내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 혹시 죽은 후에 발견되면 나의 부모에게 알릴 수 있을까 해서였다. 또 물 수 있는 물건 몇가지와 뚜껑이 있는 바구니를 함께 묶었는데 이것도 혹시나 다른 이를 육지에 닿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될까 해서였다. 그렇게 한 후 나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였다. 동시에 내 부모 친구 및 그밖의 모든 것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최후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만약 가능하면 주님께 구하노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사탄은 나를 크게 시험했다. 나는 무서운 투쟁이 있

은 후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를 받았다. 바닷색이 회색으로 변한다. 이것은 육지가 바로 가깝다는 것을 의미했다. 선주가 말했다.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장입니다. 바닷물이 갑판위의 물건들을 모두 쓸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때는 그 누구도 무서워 말지경이었다. 선주는 배를 밖으로 회전할 것을 명했으나 불가능했다. 그는 다시 안쪽으로 회전할 것을 시도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였다. 배와 해안과의 거리는 불과 배의 거리 두배였다. 바로 배를 돌리려 할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바람이 갑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불어 완전히 해안에 닿게 하였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우리의 온갖 노력은 허사였을 것이다.

1854년 1월 5일 배는 이미 신지리아도의 북쪽 위험한 수로에 도달했다. 토요일 저녁 배는 육지에서 430해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주일 아침 예배를 볼 때 선주의 얼굴에 수심이 있음을 보았다. 나의 물음에 선장은 이렇게 대답했다. “급류가 배를 압초 있는 데로 보내는 데 매시 약 4해리의 속도입니다. 지금 바람이 없으므로 힘이 없습니다. 저녁 전에 압초에 부딪쳐 침몰할 것 같습니다.

점심을 먹고 배위의 사람들은 전심전력을 다해 뱃머리를 돌려 해안에서 멀어지려 노력했으나 추호의 효과도 없었다. 모두 조용히 갑판 위에 섰다. 선주가 내게 말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지금은 다만 결과만을 기다립니다.” 내가 대답했다. “아직도 우리가 하지 않은 한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데요?” “배안에 4명의 기독교인이 있지요. 선주·급사목사와 나—우리가 각기 자기 방으로 들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빨리 우리에게 바를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를 주는 것이나 해진 뒤에 주시는 것이나 모두 손쉬운 일일 것입니다.” 선주는 나의 의견에 찬성했고 나는 즉시 나머지 두 사람에게도 알렸다. 네 사람은 각자 물러가 기도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구한 바를 허락하셨다고 느껴져 다시 간구할 필요가 없어 갑판 위로 갔다. 이 때 배를 운전하고 있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선장이었다. 나는 올라가서 부선장에게 맨꼭대기 돛을 내리자고 했다. “그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소?” 그는 통명스럽게 대꾸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곧 바람이 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압초에 가까이 왔습니다. 일본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홍, 나는 바람을 보기 원하지. 바람 이야기가 들을 필요는 없소.”

그가 나를 일시하는 눈초리로 말할 때 제일 높은 곳의 돛목을 바라보았는데 그것은 이미 미풍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소리쳤다. “당신은 바람을 볼 수 없어요? 저 꼭대기의 기목을 보십시오!” 부선장은 말했다. “아니야, 저건 고양이발톱(실바람)에 불과해.” 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그것이 실바람이든 무엇이든 빨리 돛을 내리십시오. 우리에게 이로울 것입니다.” 그 때에 선장이 갑판 위에 올라섰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두리번거렸다. 바람은 과연 불어왔다! 몇분 후 우리는 시속 6~7해리의 속도로 바닷물을 헤치며 전진하고 있었다.

1854년 3월 1일 배는 오송항구에 정착하였다. 마침내 해안을 밟는 순간 그야말로 감개무량하였다. 감격의 눈물이 솟아 올랐다. 나는 주께서 나를 온갖 위험에서 구해 주시고 중국의 땅을 밟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고 또 감사하였다. (*)

해외선교 소식

□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1) 대통령 표창 전수식

1977년 8월 20일, 대사관저에서 주인도네시아 공화국 한국 선교부 선교사 서만수의 한인학교 및 교포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박정희 대통령 표창을 이재설 대사로부터 전수받았음.

2) 한인교회 하기수양회

8월 26~28일까지 자바의 서부단 해변 안열호텔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주제로 하기수양회를 가졌는데 24명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음.

3) 찬송가카세트 제작 준비

찬송가와 악기가 없는 정글인들에게 아름다운 찬송의 기쁨을 나누고자 그동안 본 선교부에서는 성경책과 함께 찬송가책을 공급하여 왔는데 이번에는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찬송가를 들려주며 함께 부르게 하기 위하여 찬송가카세트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부하기로 온 교회와 성가대가 맹연습 중에 있음.

□ 서독—육호기 선교사

1) 부흥회 성료

8월 28~31일까지 후암제일교회 이학인 목사를 모시고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성회에 2명이 새로 출석하였다.

2) 자동차 구입

하이델베르크 한인교회로부터 1200DM 도움을 받아 포드(Ford) 15M을 구입함.

3) 계획

대집방을 실시하려 하며 푸랑크푸르트에다 교회를 개척키 위하여 계속 기도하며 추진중에 있음.

□ 홍콩—홍종만 선교사

1) 1977년도 여름여린이성경학교를 8월 1~4일까지 40여명이 출석한 가운데 실시함.

2) 홍콩에 취업중인 독신 신자 16명에게 본국의 각 가정으로 안부·전도·문안 편지 발송.

3) 8월 23일 중국인 진도성경학원 졸업식에 초청받아 참석, 축사를 함.

4) 8월 27일 매토요일마다 모이는 한인학교 제2회 졸업식(11명)을 거행함.

□ 이집트(애굽)—이연호 선교사

1)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사우디한인교회에서 선교비에 써달라고 미화 310불을 송금해 온 것을 찾았음.

2) 선교사의 사택을 선교활동상, 교통 편의, 경제적인 도움,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헬리아포리스에서 마디로 옮겼음.

3) 10월부터 시작되는 신학교 강의를 위하여 준비중에 있고 노동허가와 거주허가 수속을 서두르고 있음.

4) 카이로한인연합교회의 실정

이집트(애굽)는 회교국이기 때문에 휴일이 금요일. 우리는 업무관계상 금요일을 휴일로 하여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데 지역간의 거리관계로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예배드리고 3시에는 대사(大使)택에서 기도회 형식의 모임을 갖고 있음.

1/200자 찬송

가슴아픈 사이

고 제 원

몇년전 교사수련회 때의 강사님의 말씀이 생각난다. “人生을 느끼면서 살아 왔으며 느끼며 깨달은 것이 인생은 「가슴아픈 사이」라는 사실이다. 이 가슴아픈 사이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만물 사이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위에 보내신 것 즉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이 인간에 대해 가슴이 아프셔서 불쌍히 여기시어 보내셨던 것이다. 인간사회에서도, 교아원을 방문한 방문자들의 마음은 가슴아픈 심정이 있을 것이며 행복한 사람들에게 의해 잊혀진 지대(망각지대)에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동정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가슴아픈 사이를 말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물 가운데서도 자기의 소유의 생물을 유지 못한 사물에 대해 안되었구나 질서가 파괴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소용담지 못한 폐품을 소용담게 하는 것이 인간의 재창조의 기쁨인 것처럼 이 역시 가슴아픈 사이가 아니겠는가? 어찌 애착을 느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바로 이 가슴아픈 사이가 크리스찬의 밀천이요 전제산이며 20세기의 풍부한 에너지이며 한국의 크리스찬에게 바라고 싶은 것이다”라는 말씀이었다.

그렇다. 요즈음 우리네들 주위에는 너무나 가슴아픈 사연들이 많다.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가족, 교회, 국가, 민족 사이에 가슴아픈 사이가 어제와 오늘과 내일도 계속될 것이다. 이 가슴아픈 사이를 올바르게 깨달은 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길일 것이다.

수양회때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심령들을 볼 때 쌓였던 가슴아픈 사연들이 한꺼번에 폭발되는 모습에서 또 한번 인생은 가슴아픈 사이라는 것을 느꼈다. 성전건축에 있어서도 진정한 가슴아픈 심정이 없이는 어려운 것이다. 건축해야만 되리라는 간절한 가슴아픈 사이가 있어야만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 웅장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리라 본다.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도 진정한 가슴아픈 사이가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족복음화운동의 물결 역시 가슴아픈 사이가 있었기에 대집회를 열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큰일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식어가는 현실에서 진정한 사랑의 공급자가 되기 위해 가슴아픈 사이를 올바르게 깨달아 아픈 사이의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참 크리스찬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원하고 계신다.

너 시험을 당해

(Yield Not to Temptation)

새 587; 개 563; 합 576

너 시험을 당해 범되지 말고
네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매일 기도하면서 주께 위로를 빌라
너의 지도자 예수 항상 도와주리

승리 없는 영광은 존재할 수 없다.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시험에 넘어갈 없이 승리해야 한다. 어떻게 하여 승리하겠는가? 오직 성령의 힘만이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이길 수 있게 한다.

이 찬송의 작시 작곡자인 호레이시오 리치몬드 팔머(Horatio Richmond Palmer)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는 1868년 “이론(Theory)”이라는 따분한 제목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찬송의 영감을 받아 그 공부하던 것을 제쳐놓고 이 찬송시를 썼고 작곡까지 다했는데 얼마나 빨리 써내려 갔는지 펜이 미쳐 휘파르지 못했다고 했다. 그뒤 한 친구의 제안으로 3절에 약간의 수정을 가했고, 후에 곡을 A플랫에서 B플랫으로 바꿨을 뿐 나머지는 처음의 그대로 두었다.

그가 팔레스타인을 여행할 때, 어떤 기자가 이 찬송가 탄생의 동기를 묻자 “내가 젊은이들의 시험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찬송의 영감을 받아 적어 내려갔는데 1,2절은 받은 영감을 그대로 베꼈을 뿐이죠. 그런데 3절은 완성하는 데 무척 힘이 들었지요. 2절은 약간 수정도 하구요. 이 찬송을 쓴 것은 1868년인데 전국주일학교 교사지(National Sunday School Teacher's Magazine)에 처음 실렸습시다”라고 말했다.

한가지 이상한 것은 한 번 시험에 떨어져 죄를 짓고 영애(圈)의 몸이 된 미국의 죄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는 것이다.

뉴우욕주 싱싱(Sing Sing)에 있는 주형무소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곳에는 남자 죄수도 있었지만 여죄수도 많았는데, 어느 날 여죄수들이 복도에 나와 앉아 어떤 부인의 연설을 들으려고 하던 때 여죄수들은 여간수장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군중심리에 휩싸인 죄수들은 고함을 지르며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부었다. 그 여감옥은 삼시간에 육과 저주로 메워졌고 여간수장 하나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게 되어 남자 간수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 때였다. 어디선가 한 찬송소리가 들려 왔는데 그 곡이 바로 “너 시험을 당해 범되지 말고”란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 소동은 점점 찬송소리로 바뀌었다. 반란은 가라앉고 조용히 자기 감방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리 그들이 사랑하는 찬송이었다 해도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찬송을 통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작시 작곡자 팔머는 1834년 미국에서 태어나 어려서 음악공부를 하고 뉴우욕·베를린·프로렌스 등에서 공부한 후 라쉬포드 성가대 지휘자로 있으면서 남북전쟁 후 시카고우에 정착하였다. 그는 교회 연합성가대를 조직하여 성가 콘서트를 갖기도 했으며 4,000명이나 되는 대합창대를 지도하기도 했다.

□ 도서 정보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달 구입한 책과 이미 소장된 책들을 도서대장순에 따라 소개합니다(책명/저자(편자)/출판사).

□ 8,9월에 구입한 책

- 기도예의 모험/마셜 캐머런/생명의말씀사
-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렌스 브래더/생명의 말씀사
- 성령론/스트라우스 배만/생명의말씀사
- 유능한 지도자/제츠 진/생명의말씀사
- 그리스도의 구원의능력/토머스 이인/생명의말씀사
- 오늘의 양식/김장환/아세아방송국
- 가까이 계신 하나님/빌리 그레함/아세아방송국
- 천국의 황후/슬링크 바실리아/아세아방송국
- 20C의 기록들/슬링크 바실리아/아세아방송국
- 찬송가해설(4)/김경선/신앙에 출판사
- 현대전도/케네디 제임스/생명의말씀사
-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스틸 토마스/한국성서협회
- The Best of Life/라이프/한국일보사
- 시편 강해 설교/스필겐/보문출판사
- 하나님·그리스도·성령·인간/정훈성/백합출판사
- 금식기도의 능력/최자실/영산출판사
- 승리의 생활/조용기/영산출판사
- 다니엘서 강해/조용기/영산출판사
- 성경의 권위/최훈/성광출판사
- 람계 주석(삿·룻)/람계/백합출판사
- 기독교강요/존 칼빈/세종문화사
- 거듭난 사람/칼슨 찰스/보이스사
- 관종가학/브리드 다비드/미파사
- 성공자의 목회자의 아내/펜트코스트 도로시/한국성서협회
- 그리스도인의 결혼설계/스몰/C.L.C.
- 구약의 두여인/이인한/백합출판사
- 루터의 소명론/빙그렌 구스타프/킨콜디아사
- 선교의 불을 밝힌 사람들/맥버드 레온/요단출판사
- 노아방주의 발견/발시거 데이브/보이스사
- 십자가 위의 일곱말씀/핑크 아더/새순출판사
- 결혼(성경적)/미메이 앤드루/홍신대 출판부
- 세계사대사전/조희실/민중서관
- 적어도 우리는 결혼하였다/토마스 테리/아가페출판사
- 성서지도/아비요나 미카엘/아가페출판사
- 주석 8권/매튜 헨리/기독교문서
- 누가복음(상)주석/렌스키/백합출판사
- 영에 속한 사람/워치만 니/생명의말씀사
- 히브리서 잠언/트케어 마빈/킨콜디아사
- 시간과 자유의지/베그르송 외/삼성당
- 자본주의·사회주의·민주주의/슬레터/삼성당
- 그리스도인의 윤리/니이버/삼성당
- 전경론/클라우제비츠/삼성당

<독서 캠페인>

□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념.....
.....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
.....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
.....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
.....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
.....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
.....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을 키.....
.....워 가자는 의도에서 금년에도 우리는 이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총현」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 책 ☆

테리 토마스 지음 김만중 옮김

적어도 우리는 결혼했다

4·6판/224면/값 1,000원

아가페출판사 발행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미국에서 1970년도에 첫 선을 보인 이래 11판을 발행, 무려 30만부를 돌파했다는 것이다. 여기 나오는 인물과 사건은 모두 사실이다. 주인공 테리 토마스가 들려주는 이야기 밑에는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촉촉히 적셔주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아름답던 구애시절, 약혼시절, 결혼준비 기간을 거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길에서 당한 교통사고! 결혼식을 올린 지 불과 24시간만에 벌어진 끔찍한 비극, 끝까지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이런 비극·패배도 슬픔·절망도 크리스찬에게는 승리와 기쁨과 소망과 위대한 신앙이란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실레아 슈링크 지음

새 인간

아세아방송국출판부 발행

4·6판/290면/값 700원

이 책은 저자가 자매단의 원장으로 있을 때 겪은 문제에 관해서 자매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다. 자매들은 죄에 대한 믿음의 싸움에 관하여 그 때마다 답을 쓰고 그것을 실생활에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실천해 보았을 때 놀라운 변화와 큰 보탬이 되었다 한다. 죄 앞에서 방황하며 빠져나갈 길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런 종이책자들을 모으고 보충해 만든 것이 곧 「새인간」이다.

이 책은 사람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영적 약국」으로서 도움이 될 것이며 이런 확실한 체험과 간증을 부모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해줄 수 있다면 천국 백성된 기쁨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꺼이 증거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 안영자<월간총현 기자>

시편에서 줍는

주간에 만나

시편 15:1-5

주와 교제할 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안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우리는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여 모시고, 세상 지나갈 때에 주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복되고, 예수님의 주시는 지시를 받아 바로 살고 주님의 주신 영생복락을 받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와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받은 올바른 길을 걷고

손은 선한 일을 하고

귀는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지키고

눈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입은 선한 말로 복음을 전하고 남을 위로하고

마음은 악속을 죽도록 온해를 보면서도 지키고

물질은 불의의 물질에 노예(수전노)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악속을 바라보고 참고

선을 행하면 영영히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시편 16:1-2

성도의 복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사람은 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모르면, 복이 아닌 것을 얻으려고 참된 복을 헛어버리고, 복이 아닌 것을 구하려고 생명까지 바칩니다.

사람이 복을 원하는 이유는, 오래 살고 마음놓고 평안히 살고 재미있게 살기를 원해서입니다.

그러면 참 평안은 어디서 무엇으로 얻습니까?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한 자만이 가집니다. 근심·질병·불안·유혹에 미혹받지 않고 원수마귀의 손에서 벗어나는 참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산이나 굴 속에 혹은 광야나 굴 속에 숨고 외국에 망명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품안에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기는 약한 것을 알았고, 세상 인심이 험한 것도 알았고, 세상에는 참된 피난처가 없는 줄을 바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피한 자만이 마음이 편하고, 몸이 편하고, 영혼이 즐겁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했

습니다. 즉 하나님과 바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시편 17:14-15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생활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켈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세상의 분것으로써 교만해진 자들, 하나님께 바칠 것을 제가 가로챌어 살전 것으로 배를 채우고, 자녀를 잘 먹이고 또 입히고, 자손에게 그 재산을 남겨주면서 뽐냅니다.

그러나 나는(다윗) 세상의 것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에 대하여 소망을 두지도 않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밤낮 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육신이 죽는다면 내 영혼은 부활하여 천국에서 하나님을 뵈을 것인데, 이것이 곧 나의 분것이요, 재산이요 자랑이므로 의롭게 행하며 고생하는 이유로 이 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복은 안개 같고 잠깐이며, 불의의 재물은 영육을 아울러 죽이고 자신만이 아니라 자손까지 죽입니다.

우리의 분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기쁨이요 자랑이요 재산입니다.

시편 18: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귀절은 우리교회가 선정한 성구입니다.

힘! 생명을 유지하는 힘, 악을 이길 수 있는 신력,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다윗은 이와같은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거대하고 무거운 지구를 끈도 매지 않고 공중에 떠워 놓고 매일 5억리를 날리시는 그 힘, 우주의 삼라만상을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큰 힘, 지극히 적은 쫓 하나까지 섭리하시는 그 세밀하신 힘,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속하시는 영원하신 힘이십니다. 그저 우리는 그 힘 앞에 고요히 머리를 숙여 숭배하여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능력의 주인이시며, 지금은 우주를 움직이시는 힘의 소유자이시며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심판의 힘을 가지신 엄위하신 하나님이며, 약한 자가 바로 살아야 할 때에 크신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하시며, 같이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는 힘이십니다.

이것을 알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 등, 법사를 하나님께 부탁하게 되었습니다.

구 역 소 식

축하합니다(8, 9월 중 결혼)

- 연용회군/나운전 집사 아들, 9월 1일, 중현교회당
- 고계숙양/김희재 권사 손녀, 문선옥 집사 딸, 9월 5일, 중현교회당
- 임성진양/임현덕 장로, 김순선 집사 딸, 9월 6일, 중현교회당
- 이흥철군/권명선 집사 아들, 9월 10일, Y.W. C. A
- 나상열군과 박복순양/이분전 권사 양녀, 9월 10일, 수도예식장
- 나영복양/나정목씨, 김택선 집사 딸, 9월 16일, L. C. I 예식장
- 김혜경양/김영삼 장로, 손명순 집사 딸, 9월 19일, 타워호텔
- 오택길군/최난수씨 아들, 9월 20일 타워호텔

위로드립니다(8, 9월 중 별세)

- 이순례씨/청구구역, 8월 16일
- 채효순씨/돈암구역, 8월 22일
- 오복실씨/청담구역, 8월 23일
- 한희주씨/장충 1구역, 8월 29일

9월 중 해외이주 가족

- 주병규씨/미국 로스앤젤레스, 9월 30일
- 정철웅씨/미국 로스앤젤레스, 9월 29일

기억하시고 기도합니다

- 기도원 신축과 새성전 건축을 위해 간구합니다. 기도원 신축이 그간 자재파동 등으로 다소 지연되는 듯 하였으나 계속 진행중입니다. 다시는 염려스런 일이 없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훌륭한 성전설계도와 새성전 착공의 날을 위하여 하나님께 힘써 간구합니다.
- 정글의 고장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역을 위해 애쓰시는 서만수 선교사 내외를 위하여, 홍콩을 중심으로 중공대륙을 바라보며 힘써 일하시는 홍콩만 선교사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중동선교를 내다보며 이집트(에글)에서 준비 중인 이연호 선교사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서독 비이스바덴을 중심으로 큰 꿈을 안고 선교활동에 임한 육호기 선교사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박용삼 평신도선교사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일본에서 수고하시는 의사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내외와 가족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임지를 잠시 떠나 다음일을 위해 준비중인 사업가 평신도선교사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해외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역장 노트(2)

신앙지도의 지침

백 성 룹 목사
 <부목사·구역권찰회장>

이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는 ① 사회복음화의 방도와 ② 사회악에 대한 개혁운동이라는 점을 말했다. 그러나 사회참여라는 것이 그것만이라면 구태여 사회참여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진정 사회참여라면 사람으로 하여금 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그 권리를 찾고 또 그 권리를 신장해 가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 보자.

(3) 사회참여와 인권운동

사회참여에 대한 두가지 다른 개념에서 그 활동양상은 서로 달라지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된다. 즉 사람의 책임과 그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철저히 인간본위의 인본주의 사상에 따른 인권운동과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는 신본주의 사이의 견해와 방법의 차이가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본주의적인 견해는 ① 인권운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묻는 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눅 12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눅 12:13)라고 호소했을 때 예수님은 잘라서 “이 사람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고 말씀하셨다. 이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으로 어떤 권리보다 인간의 책임을 앞세워야 할 것을 일러 주셨다.

오늘날 사회참여를 한다는 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재판장이 되고 물건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일이라면 사회의 법질서에 따라서 재판장에게나 물건 나누어주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② 즐거워하는 자들도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도 함께 울라(롬 12:15)는 사랑의 동기와 사랑의 결실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참여에 본격적인 임무라고 할 수 있다.

눅 10:30-37에 있는 저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에서 이 진리를 알게 된다. 즉 거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민사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 주인에게 잘 돌봐주도록 부탁했고 부비가 더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까지 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회참여의 정신이요, 인권을 존중하는 인간의 참 모습이다.

<다음호에 계속>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를 인함이라

—오늘 있을 성찬예식의 뜻을 바로 알고 참여하자—



성찬예식(성찬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끝까지 주님의 몸으로 지키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희생의 은혜를 영구히 기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지체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상호관계를 맺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바쳐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이룩하신 일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성만찬은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즙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과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최후의 유언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구약의 유월절을 대신하

여 세우신 것이다.

주님의 이같은 명령에 따라 교회는 수시로 세례와 성찬예식을 베푸는데 우리교회는 해마다 봄과 가을, 일년에 두차례씩 정기적으로 이 성례식(세례식과 성찬예식)을 베풀다. 올해는 지난 4월 3일에 이어 오늘(16일) 성찬예식을 베풀며 세례식은 지난 14일 저녁 베풀었다. 그러므로 충현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세례를 받은 사람이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성찬식에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거룩한 성찬예식에 참여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구속의 은총에 다시금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오는 18일, 장로 취임식 및 장립식

—이원철 장로, 지금산·윤명식·김의철
·조선근·김은호·오태희 집사—

지난 4월 17일, 실시된 장로투표에서 사상 유례 없이 당초 목표한 대로 선출되었던 7명에 대한 장로 취임식 및 장립식이 오는 10월 18일(화) 저녁 7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장로 장립식을 갖게 되는 지금산·윤명식·김의철·조선근·김은호·오태희 집사 등 6명은 지난 9월 27일 시내 왕도교회에서 있었던 장로고시에서 모든 응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모두 합격하여 본인들이 크게 기뻐함은 물론 우리 충현교회의 이름을 널리 빛내어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였다. 이로써 우리교회의 시무장로는 현재 29명에서 36명으로 늘게 되는데 절고 성실한 이들 신임장로들에 대한 활동이 새해에는 크게 기대된다.

한편 이날 순서는 전례에 따라 해당교회인 우리교회의 백성통 목사 당회장 대리가 사회를, 총회신학대학장 김희보 목사가 설교를, 정기성 목사가 기도를, 수도노회 소속 이규일 목사와 이광수 목사가 권면을 각각 하게 된다. 우리는 이들 신임장로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오는 10월 30일에 있을 새로 장로 7명을 더 뽑기로 한 일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심령부흥회 열어

—오는 10월 24일부터 청년부에서—

우리교회 청년부 면회회는(부장 윤용규 장로)는 수

도노회 청장년면회연합회와 합동으로 오는 10월 24일(월)부터 27일(목)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우리교회에서 심령부흥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이 시대를 향한 젊은 크리스찬들이 진정 자기의 현위치를 똑바로 파악하기 위한 내적인 충실과 젊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 발견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번 심령부흥회는 「불가능한 더 큰 꿈을 꾸라/행 2:17」는 주제와 같이 충현교회 젊은이들에게 값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강사로는 석배은 목사(시내 감서제일교회 시무)이며 주제 찬송은 526장이다.

당회장, 해외서 부흥회 인도

—미국 라성빌라델비아교회에서—

지난 9월 13일 저녁 3개월간의 예정으로 해외여행길을 떠난 당회장 김창인 목사는 첫 도착지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무사히 도착하여 우리 충현교회의 성도들이 다수가 출석하고 있는 라성빌라델비아교회(조천일 목사 시무)에서 한 주간 동안 부흥회를 열고 또 산상집회도 인도하였다고 한다. 모든 성도들은 앞으로 남은 여정에도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며 목적인 대로 큰 성과를 거두고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위하여 늘 기도하여야겠다.

휴지줍기운동 벌여

주교 증등부(부장 이용선 장로) 면회회에서는 10월 한달을 「성전청결」의 달로 정하고 휴지줍기운동을 벌이고 있다. 분반공부 후에 모든 학생들이 교회에 떨어진 휴지를 줍고 돌아가기로 하고 이 운동이 확장되어 모든 성도들의 협력을 바라는 뜻에서 교회 곳곳에 「휴지 안버리기」 포스터와 표어를 붙이기도 하였다.

주교교사 신중히 임명키로

— 피교육자 임명과
타교단 신학생 임명을 지양—

지난 9월 19일에 열린 교육위원회 정기월례회에서 앞으로는 주교 교사 임명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하기로 하였다. 교사 임명에 관하여 이날 특히 논의된 내용은 신학교 학생의 교사 임명에 관한 문제로서 이제까지는 신학생은 모두 정교사로 임명하였지만 앞으로는 이를 보다 엄선하여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신학교의 신학생은 정교사 뿐만 아니라 임시교사로도 일체 임명하지 않기로 하였다. 그리고 대학부 학생들에 대한 주교 교사 임명도 앞으로는 줄여가기로 방침을 세우고(고등부 이하의 학생은 교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 문제를 인사분과에서 더욱 연구하도록 위임하였다.

◇ 인사이동 ◇

당회는 지난 9월 29일 열린 정기당회에서 주교 세신자부(장년) 부지도에 이옥균(총신여교역자연수원 1년), 고등부 부지도에 김석원(총신연구원 2년), 제일성가대 지휘에 김연술(전 회경장로교회 성가지휘)을 각각 임명하고 김광석 제일성가대 지휘자 사표를 수리하였다.



<김석원>



<이옥균>

김태현 강도사 목사안수

— 윤영탁 · 전희문 전도사는
강도사 인허 받아—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시내 왕도교회당에서 열린 수도정기노회에서 우리교회의 김태현 강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김 목사는 현재 초등부 지도교역자로 토성경학원 교무담당 지도교역자로 시무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총회신학대학에서 열렸던 제62회 장로회총회에서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한 윤영탁 · 전희문 전도사가 각각 강도사 인준을 받았다. 윤 강도사는 현재 청년부 지도교역자로, 전희문 강도사는 우리교회 시무장로로 제주도 해남교회를 개척하여 시무하였었다.

교사합동친교회 열어

교육위원회(위원장 정상우 목사)는 지난 10월 3일 서오늘에서 주교 12부교사 합동친교회를 열고 자언속

새해 구역확장에 따른

구역요원 3단계 훈련계획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역요원훈련」은 배해마다 연초에 실시하는 제직훈련의 보충이 아니다. 구역요원들의 실제업무에 대한 능력을 키우기 위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시되는 정규교육이다(월간총현 1976년 2월호 15페이지 참조).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려면 지도자양성부를 수료해야 되는 것처럼 구역요원(구역장 · 권사 · 권할)의 자격을 갖추려면 앞으로는 이 교육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훈련교과내용은 ① 성경공부방법 ② 예배와 경건생활 ③ 성도의 교제와 그 방법 ④ 우리교회 신앙노선 ⑤ 직분론 ⑥ 개인전도와 새신자육성 ⑦ 심방과 구역행정 ⑧ 성도의 사회생활 등이다. 처음에는 기도회를 포함하여 한 과목에 120 분씩 수업을 하려 했었으나 매주 금요일마다 심방을 하고 저녁 예배시간을 이용하는 까닭에(다른 날은 성경학교 시간 때문에 구역예배가 없는 금요일을 택해 격주로 교육함) 피교육자들이 너무 피로하여 90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오고 있다. 이런 관제로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불충분한 교육을 보강할 필요도 있게 되었지만 더우기 새해에는 대폭적인 구역확장(현 94개를 150개로 예정)으로 보다 더 많은 구역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월간총현 지난 9월호에서 그 취지를 밝힌 대로 구역요원에 대한 3단계 훈련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 1 단계 : 여성으로서 45세 이상 (전호의 50세를 45세로 정정함)의 무혼세례인을 대상으로 심방, 성도의 교제, 교인인도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 2 단계 : 25세 이상의 무혼 남녀 세례인(전호의 남자를 남녀로 정정함)을 상대로 구역집회 인도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 3 단계 : 1 단계와 2 단계 교육을 받은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구역운영원리, 구역조직에 관한 교육을 총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3단계의 「구역요원훈련」이 끝나면 간단한 시험절차를 거쳐서 적임자에게는 「구역교사 자격증」을 주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1978년도 구역운영방침에 따라 1977년도 구역요원훈련계획이 11월까지 계획된 것을 10월까지 1개월 앞당겨 끝내고 1978년도를 대비한 이 구역요원의 3단계훈련이 1977년 11월부터 실시될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구역의 구역장 · 권사 · 권할은 물론 모든 교인들이 이에 대한 취지와 계획을 심분 이해하여 협력을 줄을 부탁한다.

<재무/구역권할회>

에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 교사들 간의 친교를 두터이하였다. 모두 250여명이 참가한 이 날 친교회는 시종일관 질서있고 흥겨운 가운데 유익한 친교의 시간을 보내었는데 12부 교사를 4개조로 나누어 조별대항 각종 경기를 벌였다. 이날 경기에서는 영아부 · 중등부 · 장년부 · 주교사무실 등으로 구성된 제3조가 가장 많은 점수를 얻어 종합우승을 차지하였다.

토막소식

*...교회 추계성례식을 위한 세례·학습문답 예비교육이 지난 10월 11일에, 문답이 13일·14일에 세례식이 14일(금) 저녁 본당에서 각각 베풀어졌다. 또한 성찬 예식은 오늘(16일) 1·2·3·4부 예배시에 베풀어진다.

*...새로이 장로 7명을 더 뽑기 위한 장로투표가 오는 10월 30일 낮 예배시에 실시된다.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준비가 간절히 요망된다.

*...성가부 제일성가대의 특별기도회가 지난 9월 30일 시내 도봉산제일기도원에서 열렸다.

*...전도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당회에서 전도위원회 분과세칙을 인준받았다.

*...미국에 있는 해외성도들이 선교비를 보내왔다(이정열씨 100달러, 임현덕 장로 280달러, 임명기군 50달러). 또 임현덕 장로는 시카고 한인교인들에게 성전 건축헌금 저금통을 100여개 가져다 나누어주고 헌금을 권장했다고 한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9월 25일 주교 교사와 일반 성도들을 위한 「공동번역성경 비판」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유년부실에서 열었다. 강사는 청년부 지도교역자이며 총신대 교수인 윤영탁 강도사가 담당하였다. 한편 윤 강도사는 지난 10월 3일 시내 종교잡리교회당에서 열린 공동번역성경 공청회(한국보수신학대학교협회의회와 한국성서번역회 공동주최)에서 「구약학 입장에서」 공동번역성경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산업전도회는 지난 10월 6일 신축중인 총현기도원을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고(인도 이성근 목사) 10월 7일에는 여육기 회원의 기업(남산·케이볼카 남산그릴)을 찾아 가서 직장예배를 드렸다.

*...새신자부(장년)는 새신자들을 위한 시작교재로 교회안내 슬라이드 필름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영아부는 지난 9월 22일 십계명암송대회를 열었다.

*...수도노회 주교연합회가 주최하는 어린이 그리기·글짓기 대회가 10월 8일 남산에서 있었는데 우리교회 유치부·유년부·초등부 어린이 다수가 참가했다.

*...유치부는 해마다 여는 학부형 초청좌담회를 오는 10월 30일 유치부실에서 연다.

*...유년부는 교사철야기도회 및 학습평화회를 오는 10월 28일 광주기도원에서 가지며 10월 30일에는 1부 교사실에서 추계대심방보교회도 연다.

*...초등부는 10월 30일에 6학년 학부초청좌담회를 유년부실에서 가질 예정이다.

*...고등부는 16일에 반별성가경연대회를 고등부실에서 갖는다. 오는 24일에는 또 고등부 성가대가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리는 선교음악제에 출연한다.

*...산업전도교육부는 지난 10월 9일 유치부실에서 「직장전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학생을 위한 특강을 열었다. 강사는 김순애 전도사였다. 그리고 23일에는 교사 및 기업주초청좌담회를 연다.

*...대학부는 10월 28일(금)부터 3일간 대학생들을 위한 특강을 마련하고 개최한다. 강사로는 황성수 박사, 황장옥 목사, 김영한 박사가 초빙되었다.

*...청년부 먼터회는 지난 9월 18일 열린 제 9차 정기총회에서 김구현을 회장으로 뽑았다.

*...장년부는 10월 30일 홍치모 교수를 강사로 「종교개혁」에 관한 특강을 유년부실에서 연다.

독후감모집

독후감 모집

대상: 총현교회 모든 성도

제목: 유년부~고등부/일반문

학서적중 자유선택

대학부이상/

·나는 너와 결혼했다

<윌터 트로비쉬>

·길은 여기에<미우라>

·끝없는 가능성<한스 크

리스찬>

원고매수: 유·초등부 - 200자

원고지 5매

중·고등부 - 200자

원고지 10매

대학부 이상 - 200자

원고지 12~15매

원고마감: 11월 10일

시상: 11월 12일 특강 후

원고제출: 총현교회 도서실

특강 안내

일시: 1977년 11월 12일 5시

장소: 유년부실

내용: 도서선택 및 독서법

□ 주일 집회 및 헌금 통계 □

*1977.9.4 현재(매월 첫주 기준)

<집 회>

<헌 금>

구	분	남	여	계	주	일	I II III IV	103,735
예	주 일	I	197	348	545	예	103,735	247,740
		II	364	890	1,254			
		III	281	538	819			
		IV	50	167	217			
배	주 일	I	272	441	713	배	3,174,460	605,800
		II	87	276	363			
		III	13	7	20			
		IV	20	63	83			
주	영	I	84	68	152	주	2,094,557	15,000
		II	93	114	207			
		III	160	161	321			
		IV	150	185	335			
일	중	I	172	145	317	일	2,195	21,155
		II	163	166	329			
		III	65	75	140			
		IV	53	57	110			
학	창	I	23	225	248	학	26,622	133,601
		II	25	66	91			
		III	6	38	44			
		IV	2,278	4,030	6,308			
교	노	I	25	66	91	교	38,527	7,061,138
		II	6	38	44			
		III	2,278	4,030	6,308			
		IV	2,278	4,030	6,308			

□ 신급별 교인통계 □

남/여

총세대수	교인총수	세례교인	유세	학	습	원	인
2,684	2,409/3,726	1,378/2,521	304/242	232/342	495/621		

가정의 짐보다 더 무거워지는 교회의 짐

오늘의 중현교회 그리고 중현교회의 사명을 두고 말할 때, 재정정책의 주역인 재정위원장작은 십자가의 짐을 짊어 지는 일꾼 중의 하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기자가 새해(1978년) 교회 예산편성의 방향과 기본원칙에 대하여 여쭙어 보았을 때, 그는 당회장의 해외여행관계로 서둘러 이미 내년도 교회 예산편성을 끝냈다면서 말머리를 조금 돌렸다.

“우리교회가 당면한 문제 또 시급한 문제를 주일학교 교육이다, 국내의 전도다, 새성전 건축이다, 기도원 건축이다 하고 말할 때 이런 일들을 실효성있게 수행하기 위해 재정적인 면에서... 교회에 정성껏 바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입 못지 않게 어떻게 쓰느냐(지출)도 그것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는 강조하여 말하며 이것이 바르게 되지 못할 때 바치고자 하는 사람에게까지 역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정위원회가 교회 형편상 새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각부서·기관에서 올린 예산안을 많이 삭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가슴아픈 고충을 털어 놓는다. 그러면서도 그는 또다시, 입이 멀어지지 않지만, 그 배당된 금액(예산)마저도 각부서 기관에서 예산집행할 때마다 가급적이면 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이를테면 종약종 및 퍼센트를 배어 건축위원회로 돌리는 운동 같은 것을 전개해 줄 것과 물자절약운동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바란다.

그는 재정보조를 위한 방안을 이렇게도 생각한다. 우리교회가 새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기 저금통에 매일 저금하며 기도하는, 작으나마 정성을 쏟고 있는데, 흔히 여전도회에서 벌이는 성미(誠米)사업을 실시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집에서 밥지을 때마다, 또는 끼니마다 한 술갈씩 배어놓는 그런 마음자세에서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표구업을 경영하는 그는 우리교회가 좋아하는 성구(聖句)들을 깨끗이 적어 표구화하여 교회당 이곳 저곳에 걸어두기를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성전 본당 앞에 있는 시편 18:1 말씀과 역시 시편 34:9의 말씀은 그 글씨를 대통령상 수상자가 우측 양진이 씨에게 부탁하여 마련한 것이다.

22년 전부터 중현교회에 출석한 윤장로는 2년 후 집사임직을 받고 10년 후에 장로장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1920년 태어나, 10세부터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특수한 환경 탓으로 어릴 때부터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다고 간증한다. 그는 교향인 합창에서 1·4후퇴 때 월남하였고, 부인 신군자 권사와의 슬하에 2남2녀를 둔 남들에게서 「복을 많이 받은 장로」라는 애기를 듣는다.

그것은 그의 표현대로 순 중현산(忠顯山)인 말아들 윤형철 전도사(중등부 지도·충신연구원 재학)를 비롯하여 말팔 윤경희 씨(결혼·도미)와 둘째아들 윤원철

한 교회에서 더더구나 큰 교회에서 15년여를 한가지 일「회계」를 맡아 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든 화제거리다. 지난 달 본교회 설립 기념일에 20년 근속자로 공로표창을 받은 윤종성 장로가 바로 그 사람—그는 금년부터 본교회 재정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고 있다.

지난 9월 30일, 편집실에서는 윤종성 장로를 맞아 자리를 당회실로 옮겨 조선근·정은표 집사가 자리를 함께하여 대담의 시간을 가졌다.



◇ 우리교회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절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윤종성 장로.

선생(고등부 교사·과학원 재학), 그리고 윤경숙 선생(고등부 반주·한양대 음대 재학) 등 4남매를 훌륭히 키운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의 가훈(家訓)은 일찍이 전에 본교회 부목으로 있던 조천일 목사(미국 라성빌라델비아교회 시무)가 둘째아들에게 선물로 준 두 성경귀절이다.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 9:10)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잠 12:20)이다.

하나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언젠가 당회장 목사가 자랑스럽게 소개한 때문 안쪽에 「너 집 떠날 때 기도했느냐?」의 표어가 붙어 있는 주인공의 가정이 바로 윤장로 백이다. 이 글은 가족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그 집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에서 된가 느끼게 하는 것 같다며 흐뭇한 표정이다.

사업과 교회일로 험새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도 그는 지난 날의 품은 소박한 꿈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어 마음속 깊이 감사한다. 그중 한토막은 말아들이 어린시절 죽게 된 자리에서 살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서원하고 오래 동안 기도해 오는데, 고맙게도 말아들이 부모의 뜻을 이삭처럼 순종하여 스스로 기도중에 뜻을 정하고 그 준비로 연세대 철학과를 거쳐, 물론 군복무도 마치고 현재 충진연구원 3년 재학중이라는 것이다.

이제 자녀들이 다 성장하여, 가정의 짐은 점점 가벼워지지만 대신 더 큰 교회의 짐이 그의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다. 앞으로의 일이란 그의 여생을 주님과 교회를 위해 어떻게 살아 드리느냐가 더 큰 과제로 남게 되었다.

<정리/조선근 집사>

전도용 카세트테이프 보급 안내

김창인 목사 설교 녹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도용으로 제작된 김창인 목사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종 류	보급가격	내 용
90분짜리	900원	설교를 포함한 예배순서 전체가 녹음됨
60분짜리	600원	설교만 녹음됨
녹 음	200원	카세트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녹음만 의뢰할 때

□ 송료는 별도/국내기준-1개 50원

※ 원칙적으로 보급가격은 설교녹음전도를 위한 헌금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급가격에 구애 없이 설교녹음전도를 위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녹음 카세트테이프는 어떤 사람에게 필요한가?

-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일가 친척과 친구를 위하여
- 해외에 있는 친지나 성도 그리고 한국인 기술자들을 위하여
- 전후방 국군장병들을 위하여
- 벽지의 농어촌교회 교역자들을 위하여
-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직장인 동료들을 위하여
-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을 위하여
- 교도소·보호소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위하여
- 그리고 메마른 나 자신의 심령을 위하여

□ 주문 또는 안내서를 원하시면

100-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5가 36 (전) 27-9937·9738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충현출판위원회

《기자석》 *...가을을 맞으며 지난 10월 3일 우리교회 주일학교 12부 교사들이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250여명의 교사가 참가하여 하루를 맘껏 즐길 수 있었다. 모든 준비도 잘 되었고 진행도 계획대로 되었고 또한 날씨도 기막히게 화창한 하루였다. 끝나고 그 후감(後感)은 보다 많은 교사들이 참석하였으면..... 하는 생각들이었다. 이는 어떤 동원의 기록을 더 높이자는 것도 아니고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다고 과시를 하자는 것도 아니었다. 주안에서 서로가 합하여 즐거이 지낸 하루가 너무나 훌륭하였기에 불참한 사람들에게 대한 아쉬움 때문인 것이었다.

*...시시하게 서오눔을 가느나. 이왕 일년에 한번가는 것을 보다 멋있는게 가서 관광을 하면 어떻느나. 4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것도 노유(老幼)를 막론하고 함께 한자리에 앉아서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등등의 안가고 못간 이문이 분분하지만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그와같은 안가고 못간 이유 때문에 교사친교회가 생겼다는 것을, 교사친교회는 관광이 목적이 아니었고 각부서만의 즐거움을 갖자고 한 일이 아니었고, 전체를 보자는 것과 전체 속의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확신하는 모임이었다는 사실을.....<이>

표지설명

장로님과 목사님과 또 부장과 교사가 서로 하나가 되어 맘껏 뛰고 즐겨워했다. 12부에 소속된 교사가 422명, 서로가 서로를 모르면서 지나기를 1년, 남녀노유(男女老幼)가 모였지만 주안에서의 자유함은 서로를 하나로 만들 수 있었고 또한 격의 없이 즐겨워할 수 있음을 주 모르는 사람에게 실증적으로 보여 줄 수 있었고 우리 또한 다시한번 확인했다.

월 간 충 현

9월호 통권 제46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송 순 일
주간/정 관 일
편집국장/조 선 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7년 10월 16일 발행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36

27-9937·9738

29-7726(편집실)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새로
목사 안수
받은 분
(10월 11일)



〈김 태 현〉

장로
취임 및 장립
받은 분들
(10월 18일)



〈이 원 절〉



〈지 금 산〉



〈윤 명 식〉



〈김 의 절〉



〈조 선 근〉



〈김 은 호〉



〈오 태 회〉



◇ 10월 6일 산업전도회 임직원들은 현재 약80%공사 진행중인 중현기도원을 찾아 이성근 목사 인도로 감사에 배를 드리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식사 제공하며 위로·격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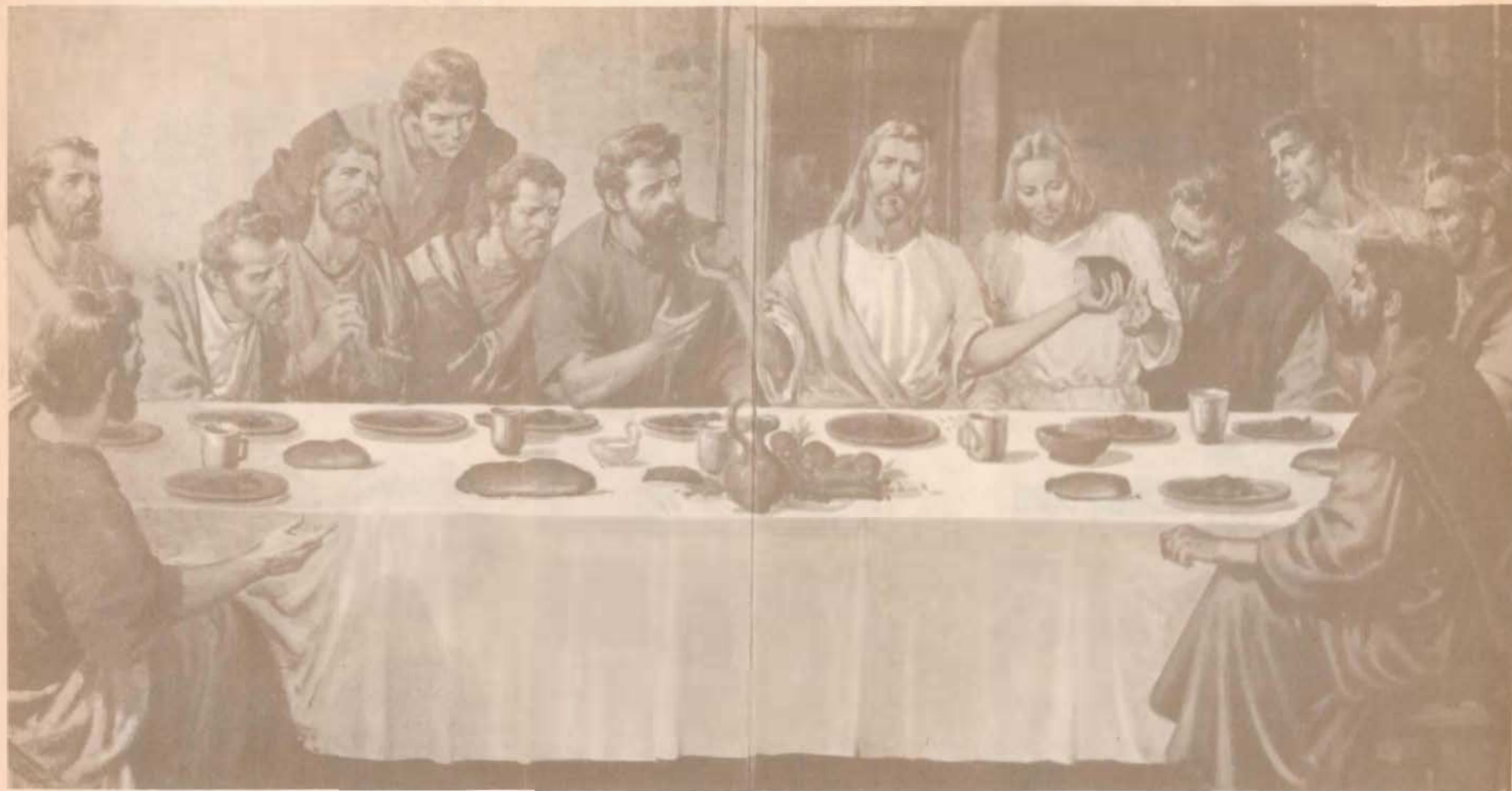
◇ 봄·가을로 교회의 큰 행사 중의 하나인 성례가 10월 13일, 14일, 16일 사흘동안 베풀어졌다. 해마다 증가되는 수제자가 지난해에는 무려 408명. 사진은 학습문답중인 모습!



◇ 주일학교 고등부는 선교의 중요성을 더 실감있게 다각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9월 24일 선교음악회를 시작으로 절야기도회·선교사초청특강·선교화보자료전시회 등을 열었다.



◇ 12부합동 교사친교대회야말로 교사친교에 절호의 찬스! 4개조로 나뉘어 각종 시합을 결정한 이날(240여명 참석) 응원부에는 제3조(영아·유년·장년·주교사무실)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 눅22 : 19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꺾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 마 26 : 26 - 28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함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 고전 11 : 26 - 29

일로암
못가에서